

월간 가든인 6월호

June 2016

Gardenin

특집
기사

수중, 수변식물 알아보기



Gardenin Maintenance

정원사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가든엔씨앗 / 파종하는 시기와 장소, 예키나



Gardenin Plants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올바른 물주기 방법
관목시대 / 산귀네움 까치밥나무



Gardenin Culture

정원속의 식용꽃 / 코레우리
힐링원예 / 잎과 줄기를 이용한 간단한 부리 내리기



Gardenin Design

정원으로의 여행 / 미로정원
COLOR IN THE GARDEN / Green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시골의 발견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 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삽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농업회사법인 (주)씨제트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연못정원

Gardenin Maintenance

6 정원사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10 가든엔씨앗 - 파종하는 시기와 장소, 에키나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6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올바른 물주기 방법

22 정원 속 보이네 - 가우라, 용담

26 Special Issue - 수중, 수변식물 알아보기

32 관목시대 - 산귀네을 까치밥나무

34 이명호의 야생화 - 구슬봉이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아이스댄스, 제비꽃, 은쭉, 홍피, 배초향, 라벤다

42 정원으로 좋은 우리야생화 - 참나리

46 서봄, 정원식물 나들이 - 옥잠



Gardenin Culture

48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바람속에 실려오는 계절

51 정원과 문학의 만남 - 제9회 산귀래 문학상 시상식

52 허브&아로마테라피 -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시트러스(감귤)계열의 에센셜오일들

54 정원의 식용 꽃 - 코레우리

5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가슴의 정원과 텃밭 안식처

60 힐링원에 - 잎과 줄기를 이용한 간단한 뿌리 내리기



Gardenin Design

64 칼럼 - 고급 조경의 새로운 트렌드, 그라스가든

68 정원으로의 여행 - 미로정원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배달음식을 시킨 후 남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HOOK FLOWER POT

74 COLOR IN THE GARDEN - Green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78 정원식물 따라잡기 - 암석 식물

80 가든인 생생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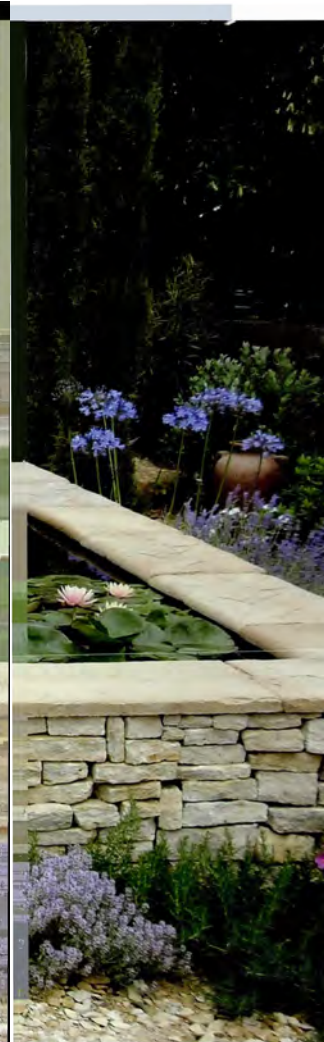
81 GARDEN & BOOK - 시골의 발견

Gardenin
 Gardenin 월간 6월호

연못정원

물은 정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다. 분수, 계류, 연못, 물확 등 물을 이용한 정원의 요소는 다양하다. 이 중에서 특히 연못과 계류는 식물과 잘 어울리게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꽃창포, 부처꽃, 노루오줌, 수련, 연꽃, 호스타 등등 아름다운 수중수변 식물이 즐비하다. 물이 주는 시원함과 꽃이 주는 아름다움이 잘 어울려 멋진 연못정원이 탄생한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정원의
아름다움과
맛...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관상정원

아름다운 계절 6월이다. 많은 꽃 중에서 으아리속(屬)식물은 꽃 중의 꽃이다. 과명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이고 속명은 으아리속, 학명으로 *Clematis*이고, 속명의 뜻은 다양하게 기어 올라가는 식물을 말한다.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으아리속은 다른 속(노루귀속, 할미꽃속, 바람꽃속, 미나리아재비속 등)과는 다르게 잎이 마주나고 꽃받침은 복화상으로 기와장 모양으로 겹쳐진다. 우리나라에는 종 모양으로 꽃이 피는 종류와 접시모양으로 꽃이 피는 종류로 나누어진다. 종 모양으로 꽃이 피는 종류에는 자주종덩굴 등 10종류가 있고, 접시모양으로 꽃이 피는 종류에는 큰꽃으아리 등 9종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는 으아리, 참으아리, 사위질방, 할미말랑 등이다. 요즘에는 원예적으로 육종된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다.

으아리속은 상록덩굴성나무, 낙엽덩굴성나무, 반관목성 속근초이며 대략 200종류가 북반구와 남반구에 분포한다. 관상적인 가치 때문에 꽃이 큰 종류가 많이 육종되어 약 400여 원예종이 있다. 덩굴성 종류는 잎을 다른 식물체나 구조물을 감아 올라갈 수 있게 발달되어 있다. 꽃은 양성화(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있음)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단

성화(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 중 하나만 있음)도 나타난다. 꽃차례는 집산화 또는 원추화이다. 꽃은 4~10의 꽃받침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 꽃받침을 꽃(꽃잎)이라고 말한다. 꽃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가 있다. 으아리속의 관상가치는 많은 꽃과 꽃이 진 후의 열매에 털이 달린 모습이다. 구조물이나 퍼골라, 벽에 유인하여 키울 수 있다.

재배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양치바른 곳이나 반음지에서 재배할 수 있다. 초본으로 자라는 종류는 양치바른 곳을 좋아한다. 으아리는 식물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늦겨울에 잘 물을 주기로 잘 뿌려준다. 식물이 시들지 않고 땅에서 튼튼한 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심을 때는 8cm정도 깊게 심는다. 심은 후에는 지면에서 30cm 정도 남기고 전정을 해준다. 식물체가 스스로 감고 올라 갈 때 까지는 줄을 이용하여 유인한다.

으아리속은 크게 3개의 모둠으로 나눌 수 있다.

번식

씨앗이 익자마자 바로 뿌려준다. 봄에 녹지 삼목을 한다. 초여름에 반숙지 삼목을 한다. 늦겨울과 이른 봄에 휘묻이를 한다.

1. 꽃이 봄에 피는 모둠: 꽃이 작년 가지에 달리고 피는 시기는 초봄에 올해 자란 가지에서 꽃이 핀다.
해당하고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재배한다.
2. 꽃이 봄과 초여름에 피고 꽃 크기가 큰 모둠: 꽃이 작년 가지에서 자란 가지에 달리고 피는 시기는 봄과 초여름에 해당하고 늦여름에는
3. 꽃이 여름에 피고 꽃 크기가 큰 모둠: 꽃이 올해 자란 가지에서 달리고 피는 시기는 여름과 초가을에 해당한다.

>> 으아리속 식물

*Clematis alpina 'Blue Dancer'**Clematis alpina 'Constance'**Clematis alpina 'Frances Riva'**Clematis armandii**Clematis 'Elizabeth'**Clematis 'Fragrant Spring'**Clematis 'Josephine'**Clematis 'Madame Edouard Andre'**Clematis 'Mrs Chalmers'**Clematis alpina 'Ruby'**Clematis 'Princess Diana'**Clematis 'Prospertus'**Clematis 'Mrs Chalmers'**Clematis terniflora**Clematis viticella 'Etoile de Hollande'**Clematis viticella 'Madame Julia Correvont'**Clematis x durandii**Clematis 'Perle d'Azur'*

텃밭정원

들깨

들깨는 참깨와 다른 꿀풀과(科)!!

고기를 먹을 때 생채소에 꼭 끼는 깻잎은 들깨의 잎이다.

인도가 원산지이며 통일신라시대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들깨는, '깨'하면 생각나는 참깨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참깨는 참깨과 식물이고 들깨는 꿀풀과에 속한다. 꿀풀과의 식물을 살펴보면 동양에는 들깨, 익모초, 방아풀, 향유, 차조기, 박하, 긴병꽃풀 같은 것들이 있고, 서양에는 로즈마리, 스피어민트, 샬비어,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유명한 허브 식물들이 있다. 같은 과의 식물을 보면 깻잎이 특유의 향을 지닌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들깨

들깨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작물이다. 씨는 볶아서 짜면 고소한 들기름이 나오고, 그냥 갈아서 찌꺼기를 걸러내면 들깨국, 들깨칼국수를 끓여 먹을 수 있다. 겹질을 벗겨 빻은 가루는 나물을 무칠 때 양념으로 쓰기도 하고, 들깨에다가 엿을 넣어서 굳혀내면 들깨강정이 된다. 잎은 쌈을 싸 먹고, 김치와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다. 어린 줄기와 잎으로는 나물로 먹는다.

또한 들깻잎에는 소화에 좋은 섬유와 무기물, 칼슘, 철, 칼륨이 풍부하고 비타민 A, C와 리보플라빈이 풍부하다. 들깻잎에 항염증성분을 조사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음식보존제로서 사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기르는 방법

과명 : 꿀풀과

학명 :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ra

영명 : wild sesame 한자명 : 蘇葉(소엽)

재배 달력		
파종	잎 수확	씨앗 거두기
6월 초~중순	7월말~	10월

1. 들깨는 씨를 흩어 뿌린다.
2. 본잎이 4~5장 되면 텃밭에 심을 준비가 된 것이다.
3. 땅에 구멍이를 판다.
4. 물을 준 다음 바로 심으면 된다.
5. 심을 때의 간격은 25~35cm정도로 하면 된다.
6. 건조에 잘 견디기 때문에 심을 때 구멍이에 물을 충분히 한번만 주거나 다음날 비소식이 있을 때 주면 아주 잘 자라고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된다.
7. 들깨는 고추와 섞어짓기 하면 병충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잎



꽃



열매

들깨 음식

깻잎 순 볶음

1. 끓는 물에 천일염을 약간 넣고 깻잎 순을 데쳐 빨리 찬물에 헹구 물기를 꼭 짤다.(채소를 데칠 때에는 물이 끓기 시작 할 때가 아닌 완전히 팔팔 끓고 있을 때 데쳐야 깻잎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선명하고 물이 팔팔 끓지 않을 때 데치면 깻잎색이 검은 색이 된다.)
2. 마늘은 얇게 편으로 썰고, 쪽파는 2cm길이로 자른다.
3. 깻잎 순, 마늘, 국간장,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4.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깻잎 순을 볶다가 물 50ml를 넣고 뚜껑을 덮어 잠시 더 익혀준다.
5. 썰어놓은 쪽파와 통깨를 넣고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하여 요리를 마친다.(깻잎순은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 살짝만 익혀 향긋하게 만든다.)



가든스쿨-오로라라(oro.LaLa)의

가든(정원)스케치(제안서)실무과정

매월 첫 주개강 / 평일: 화.수(야) 안양-목.금(주.야)-8주/16강

가든(정원)디자인(설계)전문가과정

정교과정(상반기(4월), 하반기(9월))-12주 16강



-오로라라/경기정원조경학원/도시정원아인

-강의장소: 서촌고육장(경북공역)/안양본원(명학역) 수강문의: 031-466-0901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파종하는 시기와 장소

파종을 할 때 실내 파종과 노지 파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옮겨심기를 건널 수 있는 식물인지 혹은 정원사의 필요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해살이 꽃은 야외에서 발아를 잘 하고 쉽게 잘 자란다. 하지만 야외에서 기다리기 시작하면 초여름이 되어서야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실내에서 키운 식물은 한 두 달 일찍 꽃이 화려하게 피기 시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해살이 식물의 씨들은(꽃과 채소) 서리가 지나간 뒤 봄에 야외에 바로 파종된다. 한해살이 식물들은 1년 안에 꽃이 피고 죽기 때문에 씨앗은 빨리 싹이 나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자라는 다년생 식물과 이년생 작물은 실내에서 파종 되어야 한다. 가을이 올 때 까지 뿌리 조직을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이다. 몇몇은 이른 봄, 야외에서 바로 파종될 수도 있고 겨울과 그 다음해까지도 건널 만큼 크게 자라는 것들도 있다. 추운 지역의 정원사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식물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늦겨울이나 초봄에 실내 파종이 가장 좋은 씨앗들 >

아스파라거스, 천수국, 금잔화, 브로콜리, 양파, 사루비아, 양배추, 팬지, 금어초(조생종), 파슬리, 가지, 고추, 담배꽃, 부추, 페츰니아, 토마토



가지



고추



금어초



꽃담배



금잔화



토마토



팬지



페츰니아

< 봄이나 여름에 노지에 바로 파종하면 좋은 씨앗들 >

수레국화, 접시꽃, 도라지, 양상추, 무, 콩, 루핀, 풍접초, 근대, 멜론, 시금치, 양배추(늦게 나오는 품종), 나팔꽃, 호박, 당근, 모스로즈, 해바라기, 옥수수, 한련화, 스위트피, 코스모스, 완두콩, 백일홍, 오이, 꽃양귀비, 분꽃, 금영화



꽃양귀비



달근



스위트피



코스모스



수레국화



풍접초



호박



도라지

< 실내 혹은 노지에 모두 파종할 수 있는 씨앗들 >

과꽃, 천인국, 금계국, 노루오줌, 클리플라워, 델피니움, 에키나, 차이브, 디기탈리스, 초롱꽃, 벌개미취, 패랭이꽃, 사스타데이지, 매발톱꽃, 리아트리스, 루드베키아



금계국



루드베키아



벌개미취



사스타데이지



차이브



천인국



패랭이



과꽃

2. 에키나

에키나는 곤충에 의해 타가 수분되는 식물이라서 씨를 보관하기 위해 특정 순수 품종을 지키고자 한다면 한 번에 하나의 종을 심도록 한다. 에키나는 채집된 씨앗으로 심을 수 있지만 일부 신품종들은 채집한 씨앗으로 파종하면 그 품종이 나오지 않고 원종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씨앗들은 꽃봉오리의 중앙에 있는 방울에서 채취한다. 꽃이 지고 5, 6주 후에 방울은 회색으로 변하는데 이때가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에키나



에키나 씨앗



에키나 노랑



에키나 레인보우



에키나 스노우



에키나 씨앗 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22~28도
- 식재간격 : 25~40cm
- 씨앗 저장 조건 :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 후 7일~14일
- 파종깊이 : 살짝 흙으로 덮어주고 토양표면을 가볍게 눌러준다.

실내 파종

1. 마지막 봄 서리가 오기 전 6~8주전에 실내에 파종을 한다. 모판이나 습기가 있는 토양의 화분에 파종을 하고 비닐 랩으로 덮는다.
2. 묘목이 2,3개의 떡잎을 가질 만큼 자라면, 더 큰 각각의 용기에 옮겨 심는다.
3. 약 3~4주가 지난후 묘종이 튼튼한 뿌리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야외로 옮긴다



에키나 플러그묘



플러그묘를 작은 포트에 이식한 모습



큰 포트에 이식한 모습

씨의 수확

1. 가을에 방울(cone)이 회색으로 변하고 씨들이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 손으로 씨를 떼고 1,2주 동안 펼쳐서 건조시켜 놓는다.
2. 저장하기 전에, 가법거나 조금조글해진 씨들을 걸러낸다.
3. 만약 봄에 파종한다면 마른 씨들을 냉창고 안에 보관한다.

실외 파종

가을에 수확한 후에 곧 신선한 씨앗들로 야외파종을 한다.



고급정원의 필수

에키나

이국적인 아름다운 꽃선물



구입문의

 우리꽃연구소 031.634. 0328

GardenIn TIP

- 만약 사는 곳에 조류가 많은 경우에는, 수확 할 때까지 몇 개의 익은 씨 머리위에 비닐을 씌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욕심 많은 새들에게 씨앗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 에키나는 속이 비었거나 덜 자란 씨를 생산할 가능성이 많다. 씨앗들은 가을에 바로 파종할 때 가장 발아가 잘된다.

6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허나농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북 101 저자

녹음이 울창한 6월 달에는 날씨가 덥고 장마가 있는 시기이기에 병해충을 예방을 해야 한다. 쌈채소는 속아내면서 정식하고 나서 계속 잎을 수확해서 꽃대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과채류는 활착해서 지주를 세워주거나 꽃이 피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기에 화학비료 대신 천연 재료인 미나리나 쑥을 발효 녹즙을 만들어 1000배 ~1500배 희석하면 비료로도 되며 병충해 예방도 된다.

모종으로 심은 모습

≫강동구 공동체 6월 텃밭 식재

6월 2일



텃밭 1



텃밭 2



텃밭 3

6월 10일



텃밭 1



텃밭 2



텃밭 3

6월 30일



텃밭 1



텃밭 2



텃밭 3

2015년 강동구 고덕동 공동체텃밭 모종



치커리



브로콜리



자색양배추



루꼴라



신선초



토마토



고추



미니방울양배추



자색무

2014년 6월 텃밭 모종



상채



주키니호박



참나물



비트



아마란스



초식잠

4월 파종 후 2015년 6월 텃밭



6월 2일 텃밭 1



6월 10일 텃밭 2



6월 30일 텃밭 3

앞채소 모종



들깻잎



아삭이상추



적치마상추

화훼류 및 허브 식물

〈메리골드〉

6월 2일



6월 30일

〈개마모리〉

6월 2일



6월 30일

〈왜성해바라기〉

6월 2일



6월 30일

〈바질〉

6월 2일



6월 30일

뿌리채소



2014년 6월 5일 당근



2015년 6월 2일 당근

2014년 4월 파종 후 6월의 모습



메리골드



배초향



연드래미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



동만자(돼지감자)



고수



열무



작겨자

밀 재배 모습



2015년 6월 6일



2015년 6월 16일



2016년 6월 25일 수확모습

2014년 6월 강동구 천호 3동 주민센터 상자 텃밭



6월 1일 딸기 상자 텃밭



6월 26일 딸기 상자 텃밭



6월 1일 아생화 상자 텃밭



6월 26일 아생화 상자 텃밭

2014년 6월 월계동 옥상

>> 6월 1일



>> 6월 29일



쑥 천혜녹즙 만들기



1. 인적이 드문 곳에서 쑥을 채취한다.



2.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듬는다.



3. 쑥의 무게가 1kg이면 설탕 무게도 1kg이다.(1:1비율)



4. 항아리에 설탕과 쑥을 교차적으로 넣은 후 재운다.



5. 뚜껑 대신 한지로 덮는다. 공기가 통하도록 고무줄로 묶어주고 1주일 동안 고열에 놓는다. 1주일 후 쑥 발효 물만 페트병에 담는다. 물 1000배액 희석하여 뿌린다.



3. 쑥의 무게가 1kg이면 설탕 무게도 1kg이다.(1:1비율)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아이비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대표적인 실내식물로서 창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물은 3~4일에 한 번 주면 된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원예 책자의 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검색에서도 아이비 키우기에 대한 내용은 이와 비슷하게 나와 있네요. 그뿐인가요? 꽃집 전장들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하지요.. 하지만 산타벨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비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대표적인 실내식물로서 햇빛이 밝은 곳에서 예쁘고 튼튼하게 잘자라며 물은 화분 전체의 흙이 바싹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준다.'

화초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올바른
물주기 방법'

'이 녀석은 이틀에 한 번 주라', '저 놈은 삼,사일에 한 번 주라', '애는 건조해도 잘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라'

여기저기 화초 물주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대략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으으으으 ~~~~~ 다 틀린 말이에요 !!!!

화초 물주는 '머칠에 한 번씩 주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은, 기간이 어찌 되었든 화분의 흙이 말랐을 때 주는 거예요.

계절마다 날씨가 달라 흙이 마르는 속도가 다르고 집의 환경에 따라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양이 다른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화분에 담긴 흙이 똑같이 마르겠어요? 어떻게 '머칠에 한 번씩'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겠냐고요?

오늘은 실내화초 키우기의 기본 요령인 올바른 물주기 방법.

'화분의 겉흙(=윗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로 하는 설명만으로는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서 화끈하게 사진으로 다 보여드려요. 자아,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두 눈 동그랗게 뜨셨나요?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작합니다.

첫 번째 : 눈으로 봐서 구별하는 방법

방법 : 잡념을 버리고 정신 집중, 눈을 가늘게 뜨고 유심히 살핀다.



〈젖은 흙〉

촉촉해 보이고 흙의 색깔이 진하다.



〈마른 흙〉

보송보송해 보이고 흙의 색깔이 연하다.

>> 흙이 말라가는 과정을 보실까요?



1. 물을 준 직후의 모습. 흙에 물기가 촉촉하게 보입니다.



2. 시간이 지나면서 흙에 물기가 사라지지요. 흙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흙 속은 아직도 많은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3. 흙에 균데균데 하얗게 마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안의 흙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4. 화분의 겉흙이 눈으로 보기에 모두 말랐습니다. 젖었을 때와 비교하면 흙 색깔이 훨씬 밝습니다.

"아하, 그러면 눈으로 봐서 흙이 말라보일 때 물을 주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눈으로 봤을 때 겉흙이 말라 보인다 해도 실제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첫째, 겉흙도 마르고 안쪽의 흙도 말랐을 경우 - 이때 물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둘째, 겉흙이 말라 보어도 안쪽의 흙은 젖어있을 경우 - 이때 물을 주면 안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화분의 겉흙은 분명 말랐는데 안쪽의 흙은 젖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때 물을 주면 안된다고요. 뿌리가 계속 젖어있게 되면 물러서 썩어버리니까요. 그럼 화초는 시들거리다가 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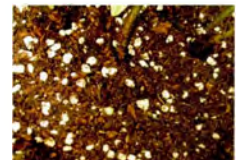
"그럼 대체 어찌라는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손으로 흙을 만져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 손으로 만져 봐서 구별하는 방법(가장 이상적인 방법)

방법 : 손끝으로만 살짝 화분의 겉흙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 두마디 정도를 흙 속에 넣어 흙을 만져본다.

A. 젖은 흙의 경우



1. 젖은 흙일 경우



2. 손가락을 흙속에 넣어 만져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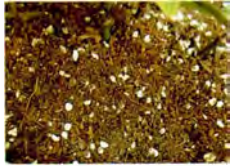


3. 촉촉한 느낌과 함께



4. 흙을 털어내도 흙가루가 손가락에 달라붙어 있어요

B. 마른 흙의 경우



1. 마른 흙일 경우



2. 손가락을 흙속에 넣어 만져보면



3. 보습보습한 느낌과 함께



4. 흙을 떨어뜨리면 흙가루가 거의 손에 남지 않아요

바로 이럴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관엽 식물의 물주는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살짝 조금 예외인 식물도 있어요.

"난, 싫어 ~! 이거 얼마 주고 한 네일아트인데... 이렇게 하면 손톱 벗겨지잖아. 손톱에 흙도 끼고... 오, 노우!"
하는 당신이라면 나무젓가락을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봐서 구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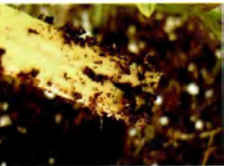
방법 : 나무젓가락의 1/4정도 길이를 흙속에 꽂아 1부터 10까지 세고 난(10초 정도) 다음 빼내어 본다.
(10초 정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나무젓가락에 흙 속의 수분이 흡수되는 시간)



A. 젖은 흙의 경우



젖은 흙에 나무젓가락을 깊숙이 넣었다 꺼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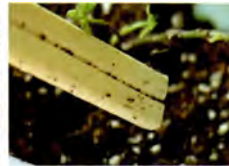
흙가루가 나무젓가락에 많이 붙어 있어요.

또, 젓가락이 너무 성분이 다 보니 물을 흡수해서 젖은 느낌이 있습니다.

B. 마른 흙의 경우



마른 흙에 나무젓가락을 깊숙이 넣었다 꺼내면



흙가루가 거의 떨어져 나간답니다.

젓가락을 만져 봐도 촉촉한 느낌이 없지요. 이때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좋아! 이제야 감이 오는 군.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 이거지?"

아니, 잠깐만요. 단어 두 개가 빠졌어요. '화분의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라.'가 아니라
'화분의 겉흙과 안쪽 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라.'입니다.



하지만 물이 화분 밖으로 졸졸 흘러나오도록 많이 주면, 흙 속의 영양분이 물과 함께 빠져나오게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물을 이렇게 주지는 않았나요? 양치질 하다가 남은 물 찰끔, 물마시다 남은 물 찰끔찰끔, 여기저기서 조금씩 남은 물 졸졸졸 ~~~ 그렇게 물을 주면 화초는 죽어요. 적은 양의 물을 찰끔찰끔 주게 되면 화분의 겉흙만 젖을 뿐, 안쪽 흙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에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고도 당신은 겉흙이 젖은 것만 보고 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워, 워, 워 ~~~ 이 급반성의 목소리들이여 ~~~~)

화초에 제대로 물주기, 이제는 정말 잘 할 수 있겠지요?

산타벨라가 화이팅 외쳐 드릴게요 ~!!!!

그 밖에 물주기에 조심할 점

1. 식물의 잎이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주면 안돼요.

식물의 잎이 마르는 이유는 물을 주지 않아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줘서 흙이 항상 젖어있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의 잎이 기운 없이 처져있거나 말랐다면 물부터 줄게 아니라 일단 흙부터 살펴보세요. 꼭!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거예요.

2. 화분의 흙 위에 이끼나 여러 가지 색깔의 장식돌 등이 있는 경우

저는 솔직히 화초 키우기의 고수가 아니라면 다 건어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장식돌은 그야말로 장식만을 위한 것이지 물주기를 제대로 하기위해 흙을 체크하려면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장식돌을 그냥 놔두고 흙을 체크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다면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3. 여름철 물주기 :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때 물을 주세요.

한 낮에 물을 주면 화분 속의 온도가 더 높아져서 뿌리가 힘들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때 물을 주면 낮 시간 동안 흙이 올라가는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4. 겨울철 물주기 : 여름과 반대예요. 해가 있을 동안에 주세요. 이왕이면 10시부터 2시 사이가 좋아요.

실내에 있는 화분이라고 해도 추운 베란다에 두었을 경우, 새벽이나 밤에 물을 주면 기온이 내려가서 가느다란 뿌리들이 상하거나 심지어는 얼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금방 받은 수도물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물의 온도는 실온과 같은 거예요. 미리 받아놓은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섞어 찬 기운을 없앤 물을 주어야 해요.

5. 다육식물과 선인장의 물주기 : 일반 관엽식물의 물주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식물들은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화분 전체의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공중습도가 높아 수분의 증발량이 낮은 정마철엔 물주기를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칫 물을 잘못주면 뿌리와 줄기 아랫부분이 물렁거리면서 썩어버리지요. 화분 안쪽의 흙이 완전히 말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화분의 밑바닥에까지 닿을 만큼 나무젓가락을 깊이 찔러보면 된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면, 다육식물과 선인장 위에 가느다란 주름이 생기면서 쪼글쪼글할 때 물을 주세요. 그런 증상은 녀석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6. 화분의 크기에 따라 체크하는 방법

소형이나 중형 정도 크기의 화분 속 흙은 위의 방법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분의 경우는 손가락 한 두 마디의 깊이만 아니라 화분에 흙이 담긴 높이의 위에서 적어도 1/5정도 깊이

의 흙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손으로 파보기엔 어려우니까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세요. 나무젓가락 전체 길이의 반 이상을 흙에 찔러 넣어 보아 습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 물을 주세요.

7. 화초를 오래 키우다보면 어떤 녀석에게 며칠 간격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지 기억하게 되면서 물주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일년 내내 그 날짜 간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강하고 건조한 봄과 가을엔 흙이 더 빨리 마르고, 장마가 긴 여름이나 식물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지 않는 겨울엔 흙이 비교적 늦게 마르니까 조심하세요.

8.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라는 말의 뜻

일반적으로 화초에게 필요한 물이라 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기 중의 습도를 말하는 '공중습도'이고 하나는 흙에 포함된 습도를 말하는 '토양습도'예요.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공중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토양습도는 식물마다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직접 경험해서 터득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란 흙이 항상 촉촉한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조한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하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트리안, 아디언텀, 네프롤레피스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녀석들은 안쪽의 흙에 좀 촉촉한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화분의 겉흙이 말랐다면 물을 때면 얼른 물을 주어야 해요.

물주는 시간을 놓치면 잎이 마르니까 늘 자주 신경 써서 흙을 체크하세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란 흙이 건조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잘 견디는 식물을 뜻하지요.

아이비, 바이올렛, 제라늄, 호야, 페페로미아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잎이 힘없이 처지지 않는 이상 화분의 흙이 모두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이 녀석들은 뿌리가 오랫동안 젖어있으면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고 줄기나 뿌리가 물러버린답니다.

9. 오랫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았거나 입자가 고운 흙을 쓴 화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 때는 화분의 물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주어도 일부만 젖을 뿐 안쪽의 흙은 그냥 말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젓가락이나 포크 같이 날카로운 것을 이용해서 화분의 흙을 푹푹 찔러 부드럽게 해주면 된답니다.

10. 식물은 잎이 깨끗할수록 호흡도 잘하고 공기정화 능력도 뛰어나답니다.

물을 줄 때 거품세 전체적으로 샤워를 해주면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해 저요.



나비가 날다.

가우라속(Genus Gaura)

가우라는 일반적으로 일년생, 이년생, 다년생 식물과 아관목의 20여 종의 속으로 북미의 추축한 지역과 대초원에서 있다. 이들은 잎은 호생하고 단순하고 창형에서 타원형 혹은 수저 모양이며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 기저엽이 있다. 새로운 꽃은 주로 늦은 오후에 피어 다음날 정오를 넘기면서 사그라들며 수명이 짧아 주로 밤과 오전에 가장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불규칙한 별 모양을 한 4판으로 이루어진 꽃은 주로 흰색이나 분홍색의 꽃이다. 최근 빨강에 가까운 품종도 만들어 지고 있다.

가우라는 새순이 나오면 무조건 꽃을 피우는 종상의 꽃차례를 가지며 매우 장기간 개화 형태이다. 이른 봄부터 피어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꽃을 피우고 있다.

일반적인 품종들은 키가 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비가 날아 앉는 듯 한 아름다움을 준다. 최근에 개발되는 품종들은 60cm 이하로 자라고 그 대표적인 종은 우리꽃 연구소가 개발한 베이비시리즈가 있다.

서리에 내한성은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주이남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며 경기이북에서는 겨울 보온을 필요로 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축축하며 밝은 태양 아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르나 건조하거나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종식은 일년생 식물의 종자를 원자리에 파종을 하고 다년생 식물의 종자를 봄부터 초여름까지 파종한다. 다년생 식물은 봄에 분주를 해주어도 되며, 기저부나 가지에 꺾꽂이를 봄에 해서 증식을 시키거나 반 성숙된 덩이줄기의 기부를 여름에 잘라준다.

해충 및 질병은 거의 없어 정원의 테두리나 도로가 혹은 혼합식재의 필수 품종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혼합정원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높은 데 특히 장기간 개화를 요하는 도로가 등에 열식 해도 좋다.



우리꽃연구소의 가우라 이야기

우리꽃연구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야생화를 개량, 육종하여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가우라와 코레우리, 패랭이, 하늘국화, 역새 등이 그 대표작인데 가우라는 왜성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품종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가우라 베이비시리즈는 키가 커 쓰러지기 쉬운 일반품종에 비해 매우 키를 낮추었다. 일반 가우라의 키가 1.2m 이상인 시장에 새롭게 등장시켜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우라는 새로운 가지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식물로 꽃이 오래 핀다. 온실에서는 겨울에도 꽃을 계속 피우는 특징이 있어 4계절 감상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종의 경우 씨앗을 피트러 오히려 잡초와 같이 정원을 망칠 수도 있어 종자를 많이 맺는 품종은 일반 정원에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꽃 연구소의 가우라 신제품

1. 베이비시리즈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는 우리꽃연구소가 교배육종 후 돌연변이 유기에 의해 육성한 품종으로 현재 하양, 핑크, 퍼플, 레드, 그리고 골든트리로 대표되는 시리즈 품종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키가 작고 많은 가지를 발생시켜 무한한 꽃을 피워내는 특징이 있다. 특히, 절간이 짧고 많은 가지 끝에서 피워내는 수많은 꽃을 4개월 감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품종 등록되어 있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 소개되어 시판중이거나 시험재배 중이다.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최선의 품종들이다.



2. 고추잠자리, 실잠자리

이 품종들은 가지가 늘어지는 형태로 자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행잉 바스켓에 기타의 꽃들과 함께 심어도 좋고 특히, 거리의 박스 화분 등에 심으면 좋다. 키가 크고 늘어지는 특성과 꽃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 대형군락 식재에도 알맞다.





3. 드레곤

키는 조금 크지만 꽃잎에 선명한 선홍의 선이 있어 매우 강렬한 품종이다. 직립형의 줄기에 꽃이 3~4개가 동시에 피는 특성으로 매우 화려하고 강한 품종이다. 특히 도로가의 열식이나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좋다. 줄기가 강건하고 세력이 좋아 재배가 매우 쉽다. 키를 낮추고 더욱 많은 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년 2회 정도 커팅해 주면 더욱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커팅 하는 시기는 6월 장마 후와 8월 말 찬바람이 불면 잘라주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맞을 수 있다.

4. 웨딩마치

웨딩마치는 처음에 흰 꽃이 피었다가 점차 분홍색으로 바뀌어 한포기에 흰색과 분홍색 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꽃이다. 특히 고온기 보다는 겨울과 봄가을 온도가 낮을 때 더욱 선명한 혼합의 꽃색을 볼 수 있는데 꽃이 없는 가을재배로 겨울과 봄에 차별화 할 수 있는 품종으로 분화용은 물론 정원용으로도 알맞다. 이품종도 연 2회 정도의 커팅을 해주면 더욱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가우라는 커팅 후 약 10~15일이면 새로운 꽃을 만개시킨다.



5. 리본시리즈

가우라 리본시리즈는 하양과 핑크색의 꽃잎에 무늬를 가지는 복색 꽃을 피우게 되는 품종으로 세력이 강하고 꽃이 큰 특성을 가진다. 키는 중간 정도 형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오후에 꽃을 빨리 피우는 품종으로 하루 종일 꽃이 만개한 듯 한 모습을 연출한다. 도로가에 열식하거나 혼합정원에 좋고 대형 분화용 식물로도 추천한다.



용의 쓸개와 닮았다

용담(Genus Gentiana)

용담은 내한성이 있는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낙엽성 식물, 반 상록성과 상록성 다년생 식물의 400여 종의 속. 이들은 온대지역 도처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고산성 지역에서 식하고 주로 남미나 일본산 종은 삼림지에 서식한다. 이들은 트럼펫 모양, 가끔 벨 모양 혹은 대부분 단지 모양의, 큰 꽃이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며, 주로 짙은 파란색이나 흰색, 노란색 혹은 가끔씩 붉은색이 있기도 하다. 잎은 단순하고 윤생제이거나 대생하는 한 쌍의 줄기를 따라 피거나 밑의 로제트에서 나온다. 가을 늦게까지 꽃이 피는 많은 키 작은 종은 반 상록성으로 분류가 되는 데 키가 15cm이하의 작은 종은 암석정원이나 토탄성의 초지에 적합하며 더 튼튼한 종은 화단의 가장자리에 적합하다. *G. asclepiadaceae*와 같은 삼림지에서 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진 곳에서 잘 자라며 양치류의 식물과 풀이 있는 곳에서도 자란다. *G. sceptrum*은 습지정원에 적합하며, *G. lutea*는 물 근처에서 효과적이다. 가을에 꽃이 피는 *gentiana*는 작고 꽃이 늦게 피는 구근 식물과 잘 결합한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주로 재배지역은 밝고, 부식토가 많고 촉촉한 토양에서 기르나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만약 아직 지지가 되지 않았다면, 가을에 꽃이 피는 종은 중성에서 산성의 토양이 필요하다. 여름이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면 용담을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고,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날씨가 있는 지역이라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막을 해준다. 증식은 종자가 성숙되자마자 넓은 틀이 있는 화분에 파종을 한다. 봄에 분주를 하거나 초여름 심목을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와 달팽이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진디와 응애는 온실에 있는 식물체에 피해를 준다. 곰팡이가 원인균인 용담녹병에 감염되기 쉽다. 다양한 토양 곰팡이가 줄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



Special Issue

수중, 수변 식물 알아보기

연못이나 계류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물 속에 심을 식물과 물 주변에 식재할 식물들을 잘 구별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의미에서 이번호에서는 수중, 수변식물들을 구별해서 주요수종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수변식물 (습지에 잘 자라는 식물)

수변식물의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들로 흐르는 냇가나 연못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변식물은 생육이 왕성하고 잘 자라지만 물속에 잠기면 생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과 주위 환경을 잘 고려하여 배치하면 아름다운 수변 연출이 가능할 것이다.



꽃창포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꽃이 무리지어 만개하면 보는 사람에게 시원함을 선사해준다. 간혹 꽃창포를 물속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변에만 생육이 가능하다. 줄무늬가 아름다운 무늬꽃창포도 있다.



왕머위

수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식물로 큰 연못의 가장자리에 숲쪽에 붙여 군식하면 좋고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아스틸베

노루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품종이 다양한 만큼 화색 또한 매우 다양하다. 수변을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며 수변의 음지쪽에 적용하면 좋다.



가우라

장기개화형 식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식물로 수변식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변에 장기개화형의 식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우라는 수변의 장기개화형 식물로 군식하거나 혼식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호스타류

옥잠이라고 불리는 호스타류는 음지에 적용하는 소재로 흔히 알고 있지만 수변식물로도 배농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잎의 무늬와 질감이 다양하여 다른 식물과 잘 어울리며 수변을 빛내주는 소재이다.



청나래고사리

자연형 연못이나 계류의 돌 틈 사이에 군식하면 좋고 어느 정도 차광되는 음지에 식재하는 것이 생육에 좋다.



적엽좁쌀풀

전체적으로 잎의 무늬가 적색이고 6~7월에 노란색 꽃이 피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수변의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해변무늬사초

연못주변에 군식하거나 계곡의 돌 틈 사이에 식재하면 가느다란 잎이 늘어서며 물에 흐르는 모습을 보는 경관이 매우 일품이다.



무늬피막이(위)/카펫주름잎(아래)

모두 포복성으로 자라는 식물로 지피력이 뛰어나고 수변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잘 적응한다. 그늘진 수변의 돌주변에 식재하면 좋고 서로 어울려 식재하면 더욱 더 좋다.



원추리류

대부분의 원추리류는 일반지에서 잘 자라지만 수변식물로도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품종이 다양하며 스텔라원추리의 경우 화기도 길어 좋은 수변경관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중식물(물속에서 잘 자라는 식물)

수중식물은 크게 주로 30cm 미만의 얕은 물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과 약 30cm이상의 깊은 물속에서 자라는 연꽃 수련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의 수변식물과 조화롭게 식재하면 연못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무늬창포

창포는 꽃창포와는 전혀 다른 식물로 줄기의 향이 좋고 생장이 매우 빠른 식물이다. 무늬창포는 잎의 윤곽이 좋고 무늬가 매우 아름다워 수중식물로 반드시 권장하는 소재이다.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하다.



수련, 연

연과 수련은 깊은 물속에서 생육이 가능한 수중식물이지만 식재 후 생장초기에는 수심이 약 10~15cm가 적당하고 생육중기에는 20~30cm가 적당하다. 완전히 활착이 되면 수심이 30~60cm까지도 생육이 가능하다. 지금은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품종들이 많이 있어 선호에 맞게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꼬리물옥잠

일년생 물옥잠과는 다른 다년생으로 잎이 길고 꼬리모양의 꽃은 5월부터 10월까지 장기 개화한다. 수심 20cm이하의 낮은 수심에서 잘자란다.



화룡물사초

파란색의 시원한 고급 수중식물로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생육이 강하여 군식하면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무늬큰고랭이

잎줄기에 세로의 하얀 무늬가 형성되어있고 전체적인 초형이 매우 아름다운 대형 수중식물로 수심 30cm 까지 생장이 가능하다.



무늬글리세리아

땅속 지하경으로 번식하며 잎이 두껍고 아름다운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어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고 수변에도 적용가능하나 물이 어느 정도 있는곳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하다



부들류

부들은 대표적인 수중식물로 땅속 지하경으로 매우 빠르게 번식하므로 작은 연못 등에 적용할 때에는 화분들을 이용하여 식재하는 것이 타 수중수변식물로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 키가 작은 미니종인 애기줄부들과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부들도 있다.



물아카시아

생육이 매우 빠르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수중식물로 부레옥잠 대용으로 안성맞춤의 소재



제비꽃

꽃이 붓꽃에 비해 크고 화색이 진하며 꽃잎속의 무늬 또한 깔끔하다. 그리고 초형이 크기 때문에 강건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수심 1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수변에서도 잘 자란다.



노랑꽃창포

대표적인 수변, 수중식물로 꽃창포와 달리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한 식물로 칼같이 곧은 잎과 노랑색꽃은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구분	규격	*부가세 별도 단가
오아시스	1,000×1,000×300	400,000
	1,000×1,000×400	500,000
	1,000×1,000×600	600,000

* 식물, 토양 별도 구매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산귀네움까치밥나무 (*Ribes sanguineum*)

글 사진 박공영

2014년 2월말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의 시애틀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길에 올랐다.

직업과 취미 그리고 특기를 모두 포기해도 어쩔 수 없는 식물이야기는 이번에 소개 하는 산귀네움까치밥나무를 보면서 받은 감동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아메리카대륙의 서부의 위쪽에 위치한 밴쿠버에서 시작된 고속도로는 바다와 산림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 초원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있는 여행코스다. 2월말은 아직 완전한 봄이라기에는 조금 이르다. 물론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으로 겨울에도 대부분 영상의 날씨이니 우리나라로 본다면 4월 중순쯤이라 보면 될 것이다. 필자는 여행 중에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과 나무, 꽃등에서 시선을 잘 놓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국경을 통과 후 가끔 나타나는 분홍의 작은 관목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 했지만 고속도로의 특성상 차를 세울 수 없었다.

나는 이럴 때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작성이 풀리지 않는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이어진 작은 마을을 지나 캠핑이 가능한 공원에서 난 그 귀엽고 화려한 친구를 만났다. 잎은 우리의 까마귀밥나무와 비슷한데 꽃은 짙은 핑크색의 아름다움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붉은 건포도 꽃이라는 이 식물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이



낙엽 관목은 직립형의 낙엽관목으로 우리나라의 까치밥나무, 까마귀밥나무와 같은 까치밥나무속(Genus Ribes)으로 잎은 3-5갈래의 단풍나무 잎을 닮았다. 가장자리에는 톱니모양을 하고 가을이 되면 붉은 색과 노랑의 단풍으로 물든다. 이른 봄에 작은 관 모양의 분홍색 꽃이 포도송이와 같이 많이 달리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모양이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것이다.



열매는 7-8월에 익는데 우리의 까치밥은 빨강데 반해 이 종류는 블루베리와 같은 청색이 도는 검은색의 열매로 맛은 신맛이 강하다. 사실 이 식물의 중명인 *sanguineum*의 뜻은 핏빛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사실 그 육즙이 검붉은 색을 나타낸다. 열매는 비타민 C, 각종 영양소,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일반적인 생식도 가능하지만 달콤한 풍미를 위해 다양한 요리에 이용된다. 그들은 잼, 젤리와 시럽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주스 혹은 알코올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다. 열매 및 잎 모두 전통 의학 및 염료의 제조에서 사용되는데 차로도 이용할 수 있다. 생태적으로 주로 태평양 연안의 바닷가를 따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남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숲

화려한 신종중 관목

무궁화 겹꽃시리즈

- 겹꽃으로 매우 화려한 무궁화 품종입니다.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입니다.
- 테마정원으로 무궁화원을 조성할 때 안정맞춤입니다.



라벤다시몬



브라덴트



화이트시몬



자이언시몬



핑크시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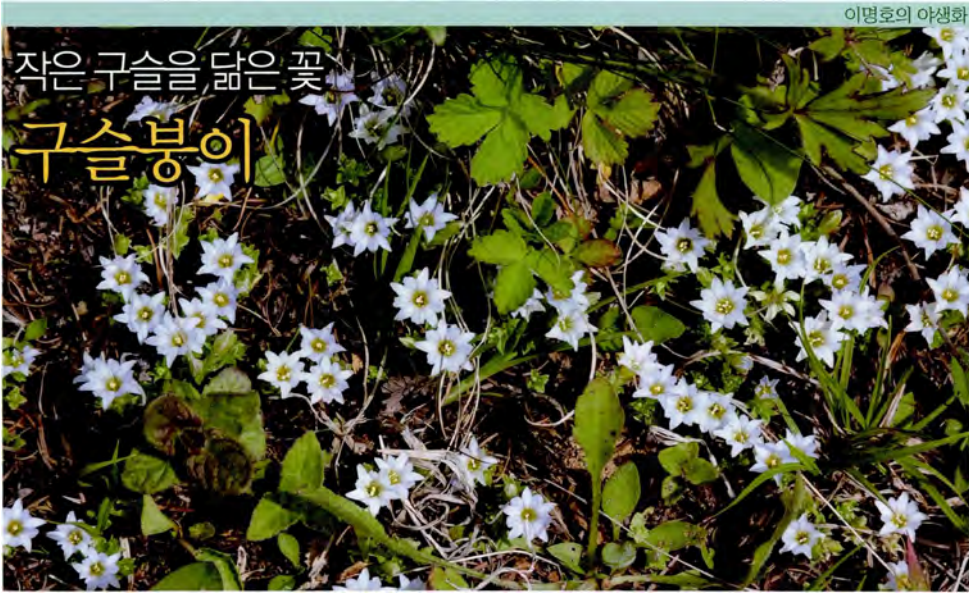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이명호의 야생화

작은 구슬을 닮은 꽃 구슬봉이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작은 구슬을 닮은 꽃

구슬봉이는 작은 구슬을 닮아 양중맞게도 생긴 꽃이다. 어릴 때 유일한 장난감이었던 구슬은 종일토록 지루함을 달래주기도 했지만, 주머니에 가득 넣고만 있어도 그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유리구슬, 쇠구슬, 옥구슬 등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구슬은 모두가 예쁘게 생겼다. 개구쟁이들의 보물이 구슬이듯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물 이 바로 구슬봉이가 아닐까? 꽃을 찍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고 싶어 하는 꽃 이니까 말이다. 구슬봉이는 작고 예쁜 구슬을 닮았으며, 정말 양중맞게도 생긴 꽃이다. 보면 볼수록 감동이다. 입은 뾰족하게 벌어져 있고 생김은 길쭉한 종모양인데, 앉아서 천천히 오래도록 관찰할수록 더 예뻐 보이는 꽃이다. 아주 작은 용담이 땅에 붙어서 낮게 자라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구슬봉이



구슬봉이



구슬봉이



구슬봉이

구슬봉이의 특징

전국의 양지바른 들판이나 낮은 산지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생육환경은 햇볕이 잘 들며 토양의 비옥도가 높고 습기가 충분한 곳을 좋아한다. 줄기는 밑에서 여러 대가 모여 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는 3-8cm이다. 뿌리에서 난 잎은 2-3쌍으로 십자 모양으로 늘어서는 데, 마치 둘러싼 것처럼 보인다. 잎은 길이 1~4cm의 피침형이고 끝이 까락처럼 뾰족하며 잎자루는 없다. 줄기에서 난 잎은 마주나고 작으며, 밑부분이 합쳐져 잎집을 이루며 줄기를 싸고 있다.

구슬봉이의 꽃과 열매

꽃은 5~6월에 가지 끝의 짧은 꽃자루에 달리며, 연한 자주색이다. 꽃받침은 5갈래로 갈라지고 난형이며, 끝이 가시처럼 된다. 화관은 종 모양으로 길이 1.2~1.5cm이며, 화관 갈래 사이에 작은 갈래가 있다. 꽃자루는 짧고 꽃받침통은 길이 4~6mm이다. 화관통은 꽃받침보다 2배 정도 길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다. 열매는 삭과이고 긴 자루가 있어 화관 밖으로 나오며, 9~10월에 익고 27개로 갈라진다. 종자는 방추형으로 편평하고 매끄럽다.

구슬봉이 무리의 비교특징

큰구슬봉이(*Gentiana zollingeri* Faw. for. *zollingeri*)는 전국적으로 흔해서 눈에도 잘 띄며, 키도 크고 꽃색이 짙어서 비교적 구별이 잘 되는 편이다.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꽃이 피고 꽃줄기가 매우 짧거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밑에서부터 작은 잎이 마주나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큰구슬봉이의 특징에 반하여, 구슬봉이(*Gentiana squarrosa* Ledeb.)와 봄구슬봉이(*Gentiana thunbergii* (G. Don) Griseb.)는 밑에서는 큰 잎이 윤생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잎이 마주나는 특징을 지닌다. 구슬봉이는 꽃받침이 뒤로 다소 자빠지지만 봄구슬봉이는 똑바로 위를 향하며,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마치 서양민들레와 민들레의 꽃받침에 비유하면 될 것 같다.

구슬봉이와 봄구슬봉이의 구별

봄구슬봉이는 구슬봉이보다 훨씬 귀한 편이며, 꽃색이 짙은 하늘색이고 줄기가 밑에서부터 길게 퍼지면서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구슬봉이는 꽃이 피는 시기도 4~5월로 한참 빠른 편이다. 구슬봉이는 줄기가 짧게 갈라지면서 5~7월에 늦게 꽃이 핀다. 구슬봉이는 낮은 곳에서 자라지만, 봄구슬봉이는 비교적 높은 곳에서 자란다. 구슬봉이의 꽃은 연한 자주색이지만, 봄구슬봉이는 푸른빛이 강한 짙은 자주색이다. 두 식물의 뿌리잎은 로제트 모양으로 둘러싸며, 뿌리잎이 줄기잎보다 크다. 구슬봉이는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지만, 봄구슬봉이는 뒤로 젖혀지지 않고 꽃잎 쪽으로 바짝 붙는 특징이 있다.

흰그늘용담과 꼬인용담의 특징

구슬봉이와 외형은 같지만 꽃이 완전히 흰색으로 피는 것은 흰그늘용



꼬인용담



꼬인용담



봄구슬봉이



봄구슬봉이

담(*Gentiana pseudo-aquatica* Kusnezov)이라고 부른다. 다른 꽃들 같으면 이름을 흰구슬봉이라고 불러야할텐데 말이다. 구슬봉이와 흰그늘용담은 서로의 특징이 비슷해도 이름이 아주 엉뚱해서 재미있다. 꼬인용담(*Gentianopsis contorta* (Royle) Ma)은 꽃잎이 꼬여서 나선상으로 돌아가며 열리는 모습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길쭉한 꽃봉오리의 위쪽만 살짝 벌어져서 꽃이 피는데, 기다란 꽃잎이 반 바퀴 정도 돌아가며 꼬여 있는 모습이다. 큰구슬봉이와 가장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꽃잎 끝부분이 나선상으로 꼬여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 꽃받침은 각이진 종 모양이다. 흰그늘용담과 꼬인용담은 이름에 '용담'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지만, 식물의 특징이 용담보다는 구슬봉이 쪽으로 더 가깝다.

자연을 보호하는 길

대부분의 귀한 꽃은 거의 자연에서만 자란다. 몇 종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옮겨서 죽이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인 것이다. 야생의 귀한 꽃들은 그렇게 다 없어져 가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에는 산에만 오르면 실컷 볼 수 있었던 꽃들이, 이제는 멸종위기 목록에 올라있는 것들이 많다. 자생지에 자라고 있는 예쁜 꽃을 혼자서 소유하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로만 주장하는 자연보호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중한 것일수록 옮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는 진정한 길은, 귀한 꽃을 자생지에서서만 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용도 및 번식법

주로 관상용으로 쓰이며 잎과 줄기는 약으로 쓴다. 지상부는 소엽과 청열작용 등이 있다. 두통과 입 안이 쓰고 눈이 충혈되며,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에 약으로 쓴다. 9월경에 익은 종자를 받아 뿌리면 다음 해에 꽃을 피운다. 옮겨심기가 거의 불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르기가 어려우므로 자생지에서 번식을 시키는 것이 좋다.



큰구슬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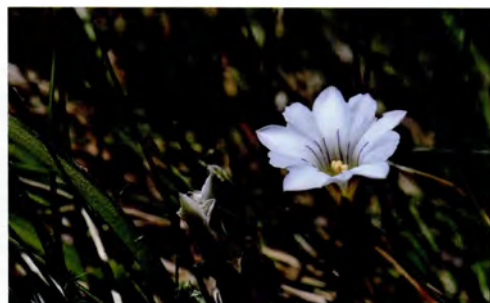
큰구슬봉이



흰그늘용담



흰그늘용담



흰그늘용담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스 티ل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립),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자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밸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⑥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아름다운 곡선의 상록의 아름다움,
사초 "아이스댄스"

사초는 화본과와는 구별되는 식물로 많은 종류가 있고 줄기가 각을 이룬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초 아이스댄스(*Carex morrowii* 'Icedance')는 고급 조경소재로 잎의 아름다운 초형은 우리의 촛관과 같이 선이 매우 아름답다. 특히 하양의 아름다운 무늬는 더욱 고급스러운 자태를 보여 주는 식물이다. 겨울에도 상록성으로 전체적인 초형은 단아하고 기품있는 보기도 아름답음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한포기가 가지는 폭은 50~60cm로 중대형이고 키는 보통 30cm 정도이다. 잎이 힘이 있고 왁스층이 발달하여 반짝이는데 포기가 이루는 모형도 매우 기품있다. 생육이 강건하고 재배가 쉬우며 극건조지를 제외하고는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번식은 주로 지하경이 뻗어 새로운 포기를 이룬다. 연못의 바위주변이나 독립포기로 혹은 락가든의 소재로 혹은 음지의 차별화된 공간 연출에도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열식 혹은 군식을 해도 좋고 특히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꽃은 5월에 우리의 독사초 같은 모양의 이삭을 내는데 큰 관상적 포인트



트는 되지 않으므로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잎의 질감이나 포기를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다. 물기가 있는 토양이나 아니면 양질의 사질토양에서 생육이 좋으며 겨울을 난 상록의 처진 잎은 봄이 되면 빨리 제거하여 새로운 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에는 지하경을 뺀지만 이른 봄에는 잎 사이의 마디에서 새로운 생장점이 움트는데 이때 무리한 포기 나눔은 여름의 생육을 불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 포기나누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장마철에 물에 잠기거나 태풍 등에 상처를 입어 잎의 질감이 좋지 않으면 아래 잎부터 잘라 주어 새로운 잎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주의 할 점은 상록으로 겨울을 나므로 가을에 잎을 잘라 내면 겨울동안에는 새로운 잎을 내지 않으므로 가을철에는 너무 자르지 않는 것이 좋다. 겨울으로는 퇴비를 많이 하고 가끔 질소와 칼리성분의 식물영양제를 주면 잎이 진해지면서 윤기를 더한다. 잎이 관상의 생명이므로 봄 먼지가 많이 묻거나 하면 잎을 깨끗이 씻어 주는 것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작업이다.

난처럼 기품이 있는 잎은 꽃꽂이 소재로도 매우 좋은 소스가 된다. 줄기를 잘라 많은 잎을 한꺼번에 꽃꽂이하거나 한 잎씩 잘라 아름다운 선을 강조하는 방법도 매우 좋다.



Q&A

Q: 장기개화되는 식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나요?

A: 장기개화형이라고 말하는 품종은 보통 최소 2~3개월 또는 그 이상 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개화형 식물들은 크게 봄부터 여름 혹은 가을까지 피는 식물이 있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한번 피어서 계속 피는 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만개의 시기가 지나가면 커팅을 해줘서 다음에 개화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엔 관리가 잘 되는 곳일수록 개화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더 많은 꽃을 피워주리라 생각합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습지의 아름다운 붓꽃
제비붓꽃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며 잘 사용하고 있는 붓꽃과 식물로는 붓꽃, 부채붓꽃, 꽃창포, 노랑꽃창포, 타래붓꽃 등이 있다. 대부분 붓꽃과 식물들은 꽃과 잎이 좋은데 그 중 꽃의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노랑꽃창포와 더불어 수변 및 수중에서생육이 가능한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붓꽃(*Iris laevigata*)이다. 현재는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수중, 수변식물로 적용가치가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지리산, 백두산 등지의 물가, 습지에서 자라는데 수심 약 10cm까지 생육이 가능

하다. 키는 약 50~70cm정도 자라고 꽃은 5~6월에 피는데 일반 붓꽃에 비해서 크고 화색 또한 거의 남색에 가까운 정도로 진하다. 그리고 붓꽃의 경우 꽃잎의 무늬가 지하분화해 느껴지지만 제비붓꽃의 경우 꽃잎에 허모양의 하얀색 무늬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꽃자태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고 잎 또한 일반 붓꽃에 비해 두껍고 넓으며 초형이 크기 때문에 경건하고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생육 또한 매우 강건해서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며 꽃이 진 후 7월 이후 활발하게 생장하여 분얼이 늘어나고 포기가 커져서 된다. 번식은 실생 또는 분주를 통해 증식하는데 종자파종의 경우 채종 후 그냥 파종하면 발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아세 또한 일정치 않아 반드시 냉처리를 해야 발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넓은 수변지에는 군식을 해도 좋으며 작은 소연못에서는 다른 식물과 어울려 심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얇은 물속에 심을 만한 소재가 많지 않은데다 특히 꽃이 좋은 식물을 더더욱 빈곤하다. 이런 면에서 제비붓꽃은 매우 이상적인 소재라 볼 수 있다.

3. 암석가든용 식물

은화색의 뛰어난 지피력
은 쑥



일반적으로 쑥하면 연상되는 것이 잡초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에 소개하는 은쑥(*Artemisia stelleriana* 'Silver Brocade')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잎의 은색이 돋보이는 고급품종이다. 잎이 전체적으로 은색을 띄어 한눈에 봐도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난듯한 느낌을 받으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돌과 함

께 절묘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아름답게 꽃피는 식물들 사이로 은빛을 내면서 주위의 꽃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다. 땅으로 갈리면서 자라다가 6월경도에 잎이 위로 추대가 되면서 노란색 꽃이 피는데 꽃이 피었으나 심을 정도로 잘 보이지 않고 볼품이 없어 이때 커팅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옆으로 뻗어나가면 적당한 계 순을 잘라주어 모양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경관상 보기가 좋다. 잎의 질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 혼합식재 등에도 앞줄식물로 이용해도 좋고 락가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다. 이외에도 잎이 실같이 가는다란 실은쑥(*Artemisia schmidtiana* 'Nana')이 있는데 이 또한 잎의 질감이 은쑥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 마치 실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암석가든에 알맞은 소재이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이름 봄부터 가을이 가는 자락까지 붉은 기운
홍 띠



띠(*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는 우리나라의 강둑과 논둑 그리고 무덤가에서도 봄이 되면 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작은 역새모양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식물이다. 지방에서는 벼비라고도 하는 이 띠는 이삭이 피기전 부드러운 때 이삭을 까서 겹처럼 씹어 먹던 간식용이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도 질기고 강하여 잡초로 곤혹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강둑이나 논둑의 무너짐이나 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더 없이 좋은 식물이다.



이 띠의 변이종인 홍띠는 봄과 여름에는 잎 끝이 붉은 단풍처럼 물들어 특이한 경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욱 붉은 선형이 문은 듯한 이색적인 아름다움은 긴장감과 함께 차별화된 조경을 연출한다. 홍띠는 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며 포복경으로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 번식하는데 땅이 좋은 경우는 매우 번식이 빠르다. 주요 적용 가능한 곳은 연중 붉은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으로 돌 틈이나 작은 언덕 그리고 문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테크주변등에 어울리게 식재하면 매우 아름답다. 또한 경사가 급한 법면이나 둑 등에 식재하면 좋고, 특이하게 경사

가 강한 골프장의 벙커 머리 쪽에 식재하여 그 긴장감을 주는 맛도 추천해볼직 하다. 그리고 티의 언덕이나 깎지 않아도 되거나 간혹 약하게 잘라 붉은 느낌의 긴장감을 주는 것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락가든이나 컨테이너 재배시 혼합수종으로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쉬어 도로의 중앙보리대를 연중 붉게 물들일 수 있고 가뭄과 습해에도 매우 강하고 공해에도 강한 유망한 수종이라 하겠다.



Q&A

Q: 가을에 꽃이 피는 초화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가을에 감상할 만한 조경용 지피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가을에 꽃을 보기위해 식재를 하는 초화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절초, 쑥부쟁이, 산국 등 국화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토종야생화류는 대부분 화기가 너무 짧은 것이 단점입니다. 아스타류, 속근아네모네, 하늘용담과 가을까지 피는 장기개화형 초화류(가우라, 코레우리 등)를 추천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지피식물들은 대부분 작은 포트로 공급되기 때문에 제대로 꽃을 보고자 한다면 6~7월경에 식재를 해야 제대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배초향



배초향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용은 완전히 다른 식물이다. 배초향은 껌맛을 담은 식물로 꿀꿀과와 여러해살이 풀로 향이 강하고 독특하여 경상도 지방에서는 민물매운탕에 넣어 즐겨 먹거나 전을 부치거나 또는 사철탕이라는 요리에는 반드시 이용하는 식물이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식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매우 다르다. 이름도 경상도에서는 오히려 배초향이라 하면 모르고 방아풀 혹은 방애잎이라고 표현한다. 그 향기는 맛을 들인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향으로 일반적인 껌맛 향보다 더욱 진한 향에 박한 향을 섞은 느낌이라 표현할까, 하여간 매우 독특하고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물고기의 비린내와 동물의 노린내를 없애주고 입맛을 돋우는데 한약재로 쓰이기도 한다. 구토를 없애주고 감기와 동맥



경화를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한다. 특히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배초향의 잎이 시판중인 동맥경화 치료제와 비슷한 정도의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라벤더(Lavender)

히썬(hyssop)이나 로바지(lovage)는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라벤더 품종은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회녹색의 바늘 모양의 잎과 향기나는 보족한 모양의 연보라색 꽃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녹색 잎이나 흰색, 분홍색 혹은 보라색 꽃들의 다른 라벤더 품종들도 있다. 라벤더는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자란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cm~90cm정도 자라기 때문에 공간에 맞춰 선택한다. 파종을 하기 보다는 화분에 식재된 묘종을 사서 30cm 간격을 둔다.

라벤더 잎과 꽃의 주된 쓰임은 포푸리(말린 꽃)이다. 또 다른 쓰임은 꽃봉우리 단계에서 건조시켜 작은 모슬린백에 넣어 바느질해서 차로 마시는 것이다. 라벤더 차는 피곤할 때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만 음식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꽃은 가름 고명으로 쓰이지만 고명으로 는 오히려 다른 허브들을 더 많이 쓴다.





나리 중의 진짜 나리 - 참나리

참나리는 야생화치고는 꽤나 크고 화려한 꽃을 자랑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백합은 야생화가 아니라 꽃을 크게 하고 좋은 향기가 나게끔 개량한 원예품종이다. 백합의 순수 리말이 나리다. 그러나 '참'자가 붙은 참나리는 백합과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자는 먹을 수 있어 '참'자를 붙였다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땅속에 있는 감자만한 크기의 비늘줄기를 제거해 구워서 먹기도 한다. 그 비늘줄기에서 제법 굵직한 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해 여름이면 진한 황적색 꽃이 아래를 향해 주렁주렁 피어난다. 꽃 안쪽에는 짙은 흑갈색 점무늬가 박혀 있다. 그 무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주근깨로 표현하지만 서양에서는 호랑이 무늬로 보고 참나리를 타이거 릴리(Tiger lily)라고 부른다. 호랑나리라는 이름은 서양 이름에서 나중에 생겨난 듯 하다. 산에서 자란다 하여 산나리라고도 하며, 붉은 꽃이 뒤로 말려 있다 하여 권단(卷丹)이라고도 한다.

참나리의 꽃은 크고 화려한 데다가 피어나 도발적이다. 여섯 갈래의 황적색 화피를 뒤로 활짝 펼친 채 암술과 수술을 길게 뿜아 놓고는 와서 한번 문혀보라는 듯 수술대 끝에 기다란 꽃밥을 세로로 터뜨린다. 꽃밥에서 나온 흑자색 꽃가루는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짙은 색이다. 잘못해서 문지르거나 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리 종류는 키가 1m를 넘기 어렵지만 참나리는 보통 1m에서 2m까지 자라므로 꽃이 피면 눈에 확 띈다. 여러 개의 꽃이 계속해서 피어나므로 화단에 무리 지어 심으면 오래도록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야생에서 흔히 자라며 특히 바닷가 주변의 산지에서 군락을 이뤄 자란다.

참나리(백합과) *Lilium lancifolium*

개화: 6~8월

높이: 1~2m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 뿌리: 지름 5~8cm의 구형의 비늘줄기가 있다.
- ▶ 줄기: 곧게 서고 굵으며 적갈색의 점이 많고 어릴 적에는 흰색의 솜털로 덮인다.
- ▶ 잎: 촘촘히 어긋나게 달리고 피침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양면에 털은 없다. 길이는 5~20cm, 폭은 0.5~1.5cm이며 잎자루는 없다. 줄기 위쪽의 잎가드랑이에 달리는 짙은 갈색의 둥근 살눈이 떨어져 반식한다.
- ▶ 꽃: 7~8월에 줄기 끝에 4~20개의 황적색 꽃이 약간 아래를 향해 핀다. 화피조각은 6개이고 뒤로 활짝 펼쳐지며 안쪽에 검붉은 반점이 많다. 수술은 6개이고 화피 밖으로 길게 나온다. 꽃밥은 흑자색이다. 암술대는 곧게 선다.
- ▶ 열매: 긴 난형의 삭과이고 매끈하다.



전남 완도군의 바닷가 바위 지대에서 자라는 모습



경기도 성남시 신구대학교식물원에 심은 모습

유사종 알아보기

참나리가 유사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줄기에 살눈이 달려 반식한다는 점이다. 주아(珠珠)라고도 불리는 살눈은 땅에 떨어져 하나의 개체로 복제되는 작은 덩어리다. 이것이 줄기에 달리면 무조건 참나리다. 그 외에 여러 유사종이 있으니 구별법을 익혀두면 좋다.

살눈이 달리지 않고 줄기와 잎에 털이 많으며 꽃이 중간 정도를 향해 피는 것은 '털중나리(L. amabile)'라고 한다.

털중나리에 비해 줄기와 잎에 털이 거의 없고 꽃이 열리는 황적색인 것은 '중나리(L. leichtlinii var. maximowiczii)'라고 한다.

꽃이 작고 땅을 향해 피며 화피의 반점이 불분명한 것은 '망나리(L. amabile)'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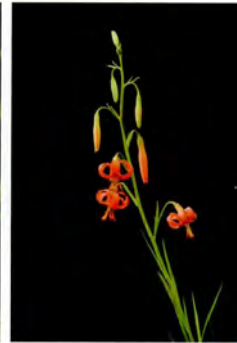
망나리와 닮았으나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은 '노랑망나리(L. amabile var. flavum)'라고 한다.



털중나리



중나리



망나리



노랑망나리

망나리와 닮았으나 노란색 꽃이 피는 것은 '노랑망나리(L. amabile var. flavum)'라고 한다.

5~15개 정도의 잎이 줄기에 치마처럼 둘러서 달리며 꽃이 옆을 향해 황적색으로 피는 것은 '말나리(L. distichum)'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잎이 대개 2층 이상 둘러서 달리고 꽃이 등황색이며 울릉도에서 자라는 것은 '섬말나리(L. hansonii)'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잎이 약간 넓은 것은 '하늘말나리(L. tsingtauense)'라고 한다. 하늘말나리와 닮았으나 꽃이 짙은 노란색인 것은 '누른하늘말나리(L. tsingtauense f. flavum)'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잎이 넓은 선형이고 어긋나게 달리며 꽃이 하늘을 향해 피는 것은 '하늘나리(L. concolor)'라고 한다.

하늘나리에 비해 화피조각이 넓은 도피침형이고 줄기에 날개가 발달하는 것은 '날개하늘나리(L. dauricum)'라고 한다.



말나리



섬말나리

5~15개 정도의 잎이 줄기에 차마처럼 돌려서 달리며 꽃이 옆을 향해 황적색으로 피는 것은 '말나리(L. distichum)'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잎이 대개 2층 이상 돌려서 달리고 꽃이 등황색이며 울릉도에서 자라는 것은 '섬말나리(L. hansonii)'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잎이 약간 넓은 것은 '하늘말나리(L. tsingtauense)'라고 한다. 하늘말나리와 닮았으나 꽃이 짙은 노란색인 것은 '누른하늘말나리(L. tsingtauense f. flavum)'라고 한다. 말나리에 비해 잎이 넓은 선형이고 어긋나게 달리며 꽃이 하늘을 향해 피는 것은 '하늘나리(L. concolor)'라고 한다. 하늘나리에 비해 화피조각이 넓은 도파침형이고 줄가에 날개가 발달하는 것은 '날개하늘나리(L. dauricum)'라고 한다. 꽃이 대개 홍자색을 띠고 아래를 향해 피며 잎이 술임처럼 가는 선형인 것은 '술나리(L. cernuum)'라고 한다. 술나리에 비해 꽃이 황적색이고 화피가 피침형인 것은 '큰술나리(L. tenuifolium)'라고 하며 현재 남한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늘말나리



누른하늘말나리



하늘나리



날개하늘나리



술나리



큰술나리

심기와 관리하기

- 참나리는 빛을 좋아하므로 충분한 햇빛에서 잘 자란다.
- 물 빠짐이 잘 되는 비옥한 사질양토에 심는 것이 좋다.
- 건조에 강하며 물은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 봄부터 여름까지 완숙 퇴비를 매달 한 번씩 뿌려준다.
- 주로 살논이나 비늘줄기로 번식한다. 줄기꽃이를 해되 되고 씨로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글 사진 이동혁
 혁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빅사이즈 화분,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감!
 직재촉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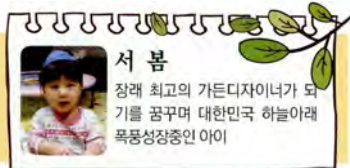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음지의 카멜레온

옥잠(호스타) Hosta



와, 제 머리만한 크기의 잎이네요

며 너무 습한 겨울날씨는 싫어합니다. 옥잠은 달팽이의 피해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이 점을 주의하고 잘 만들어진 퇴비를 일년에 2번 정도 뿌려주면 좋습니다. 늦가을부터 휴면에 들고 봄에 새싹이 나올 때 묵은 잎을 잘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잎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대형종에 이르기까지 또는 잎의 색상이 풍부한 옥잠은 나무아래 음지에서 다양한 품종을 잘 활용한다면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음지용 정원식물입니다.



옥잠 블루문과 골드티아라 사이에서 사진 한 장 찰라~



다양한 종류품종은 음지를 연출하는데 있어서 최상의 소재입니다. 옥잠이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은 충분한 간격을 주는 것이며 잎의 크기를 고려하여 띄워서 심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색상이 섞이지 않게 하며 밝은 색을 사용하거나 녹색의 잎을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주면 좋고 푸른색 계통의 잎은 시원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카멜레온 같은 옥잠은 아름다운 잎을 가진 식물들을 좋아하는 정원사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대표적인 정원식물입니다. 옥잠은 여름에 내리는 비를 좋아하고 이는 더욱 풍성한 잎을 만들며 겨울에는 내한성이 뛰어나



다양한 옥잠과 함께~

옥잠 종류 알아보기



골드스탠다드



리얼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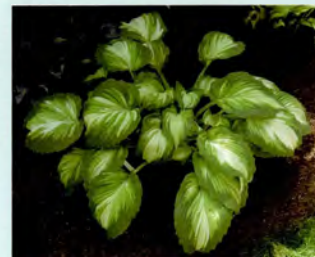
썸



엘레강스



와이드브림



위대한트



썸



화이어엔젤스



미니스우드



트와일라이트



프랑스릴리앙스

속초에서
온 편지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바람이 불면 꽃들은 낮게 누워 온 몸으로 바람을 이겨낸다.

글 사진 오 경 아

6월 June 바람 속에 실려 오는 계절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계절을 품은 바람

이들이 넘도록 강풍이다. 미시령 근처에 분 바람은 시속 42킬로미터가 넘었다고 하니 이건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라고 봐야할 정도다. 정원의 모든 나무와 풀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낮게 몸을 낮추고 온 몸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키가 큰 나무는 바람이 부는 날은 치명적이다. 이제 막 물이 올라온 나뭇잎을 챙길 틈도 없이 설 새 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가지가 흔들린다. 그러다 끝내 부러지기도 한다. 식물만이 아니다. 낮은 한옥집도 바람에 연신 삐거덕거리고 연신 창호지 바른 출렁이는 문은 덜컹거리며 누가 문이라고 열고 들어서는 것처럼 사람을 긴장시킨다.

속초의 불바람은 이곳 사람들에게겐 익숙하다. 차갑고 시린 겨울바람과 달리 더운 바람이 분다. 비와 함께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만 불어온다. 바람의 방향은 대부분 설악산에서 동해 쪽이지만 순식간에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기도 한다. 하루 종일 창밖으로 불어대는 바람만 감시하다보니 바람의 특성도 읽힌다. 마치 배알이 하듯이 한번 정신없이 몰아치다 잠잠해지고, 그러다 다시 몰아쳐 온다. 그리고 잠시 바람이 멈출 때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고요 속에 빠져든다.

속초 어른들은 이 바람 속에 여름이 실려 온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면 식물들은 잎의 기공을 막는다. 바람에 수분이 빨리 달아나기 때문에 목말라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공을 막은 채 오래 건디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들 이상 바람이 불어오면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메마름의 후유증이 남는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식물만큼이나 불안해지는 내 마음을 이리저리 달래본다. 계절도 이렇게 쉽게 오지 못하고 몸살을 앓는데 우리 사는 삶이야 오죽할까 싶다. 모두가 잘 건디야 찾아오는 게 철이고 계절인 듯하다.

흙을 돌보자

6월에 들어서면 여름 기운이 어느새 바짝 다가온다. 사실 5월부터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에서는 이제 바깥 땅에 직접 씨를 뿌려도 발아가 될 만큼 따뜻해진다. 늦여름에 꽃을 피우는 코스모스, 헬레니움 Helenium,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별개미취 Aster koraiensis, 뽕나무 Geum japonicum 등이 이제는 씨앗에서 발아되어 키를 키우는 시기다. 씨앗을 발아시킬 때에는 이들 정도 물에 담가 씨앗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코팅이 잘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땅을 갈고리로 여러 번 다듬어 보송하게 공기가 잘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땅이 포근해야 발아를 시작한 씨앗이 빠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을 키울 때 물주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정작 식물을 키우는 흙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다. 그런데 실은 식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땅이다. 이런 땅에서는 식물이 가까스로 발아가 되더라도 뿌리를 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흡수해야 하는 영양분과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땅을 잘 다듬어 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잡초 때문이기도 하다. 잡초는 태생적으로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잘 적응하도록 유전자가 발달된 식물이다. 그래서 비옥하고 잘 만져진 땅에서는 오히려 힘들어하는 현상이 생긴다.

서양 속담에 식물을 키우는 것은 흙이고, 정원사는 흙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식물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원사의 손길보다는 흙의 돌봄임을 잊지 말자.

멀칭의 방법

식물이 키를 키우는 사이 계절은 점점 뜨거운 여름으로 다가간다. 이제 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멀칭'이다. 멀칭은 바크, 원예



굵은 자갈로 멀칭한 수크령 화단. 멀칭은 바크, 원예상토, 자갈 등으로 두툼게 흙을 덮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씨앗은 물에 이를 정도 담가 씨앗을 감싸고 있는 겹질이 잘 벗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발아가 좀 더 촉진된다.



씨앗을 구매하고, 땅을 만져주고, 발아를 시키고, 심어야 하는 천천히 때를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정원 일의 중요한 키워드다

상토, 자갈 등으로 두텁게 화단의 흙을 덮어주는 일을 말한다. 멀칭이 중요한 이유는 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도록 수분을 움켜쥐고, 잡초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가 하면, 바크와 원예 상토의 경우는 유기물로 흙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까지도 한다. 멀칭을 하는 시기는 이른 봄이나 혹은 가을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잡초의 번식이 장마철 이후 급격해지는 경우에는 여름에도 두텁게 멀칭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원예 상토로 두텁게 멀칭을 해준 뒤, 그 위를 자갈이나 바크 등으로 다시 덮어주는 두 번의 멀칭을 선호하는 편이다. 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었을 경우 잡초의 번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이 멀칭의 작업을 잊지 않는다.

여름 화단의 기다림

속초 정원에 올 여름 나는 특별한 정원을 기획 중이다. 영국의 가든 디자이너 거트루드 지킬Gertrude Jekyll, 1843~1932의 화단은 7월과 8월에 절정에 이른다. 그녀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구성된 화단을 디자인했는데 색에 따라 화색과 파랑, 주황과 노랑, 진한 빨강과 자주, 보라와 분홍, 파랑, 그리고 다시 화색으로 화려한 색의 정원을 연출했다. 속초의 정원에 화단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데, 그녀의 화단 조성 방식을 따르되 좀 더 나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세라 레이븐이 즐겼던 진한 자주와 분홍, 보라의 색깔을 많이 가미하는 중이다.

그러나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드는 일도 참 더디게 진행된다. 화단의 밑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씨앗과 식물을 때 맞춰 주문하고, 땅을 만들고, 씨앗을 발아시키고, 심고, 한 달 넘게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겨우 자리를 잡는다. 동화 '채크와 콩나물'처럼 하루 밤 사이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일은 현실에선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참 정직하게도 정원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기다림과 준비에만 답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정원과 문학과의 만남 제9회 산귀래 문학상 시상식

5월 3일 곳은 날씨에도 많은 수필가들과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산귀래 별서 식물원에서 열린 제9회 산귀래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산귀래문학본상에 구양근 교수, 산귀래문학상에는 유경식, 문만재 수필가가 영광을 누렸다. 가장 꽃이 만발한 날을 잡아 9번째 열리고 있는 산귀래문학상 시상식은 예술가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나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보고자 하는 산귀래 별서의 주인장이신 박수주 원장님의 바람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원에서의 문학상 시상식이고, 단체가 아닌 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꼭 이 끌어 온다는 것은 보통의 고집으로는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든다. 초출하지만 정원의 가장 화려한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의 자태와 함께 꽃 내음 가득한 곳에서 열리는 가장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문학상,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의 자부심이 지금까지 산귀래 문학상을 맑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학가들에게 더욱 영감을 줄 수 있는 자연을 배려하는 산귀래 별서의 그림 같은 배경이 산귀래문학상을 더욱 빛나게 한다.

글 사진 우정아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시트러스(감귤) 계열의
에센셜오일들그레이프후트, 레몬, 만다린, 버가못,
오렌지스위트 오일글 사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 www.aromallife.com aromainlife@naver.com

시트러스(감귤) 계열(Citrus):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과 명 : 운향과(Rutaceae)

추출부위 : 과피(Rind)

추출방법 : 냉각 압착법(Cold Pressed)

노 트 : 탑(Top)

마음을 밝게 해주는 감귤(시트러스) 계열의 정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으며 상쾌함과 달콤함으로 인해 정신을 고양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식욕을 돋우며 소화촉진에도 도움을 준다. 향이 좋지 않은 정유도 감귤계의 정유와 블렌딩하면 향이 좋아진다.

주의 사항

- 1) 감귤계(시트러스) 정유는 모두 광감성이 있다. 이런 정유가 피부에 닿은 그대로 햇빛을 받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6시간 동안은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한다.
- 2) 감귤계의 정유는 산화가 빨라서 개봉 후 9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감귤계(Citrus) 오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레이프후트
(Grapefruit): 자몽

학명 : Citrus paradisi

주요작용: 항우울, 정신 고양,

항균, 이뇨 작용,

림프순환 촉진, 비만 관리



아침 햇살의 Sunshine에 비유되는 자몽 향은 어둡고 우울한 마음에 밝은 빛을 주는 대표적인 오일이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리후레쉬에~

- 1) 티슈, 손수건 등에 1~2방울 떨어뜨려 향을 맡는다.
- 2) 아로마램프에 3~5방울 떨어뜨려 발향한다.
- 3) 아로마 목걸이에 그레이프후트 오일을 넣고 다닌다.

셀룰라이트, 체액정체, 비만 관리에~

- 1) 캐리어 오일 1스푼(5ml)이나 마사지 크림에 그레이프후트 3방울을 희석하여 바르면 림프 순환 촉진과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 2) 젖은 수건에 3~5방울을 떨어뜨려 3~4주 동안 매일 셀룰라이트 부위를 문지른다.
- 3) 천연 소금 한주머니에 5방울 떨어뜨려 족욕한다.

2. 레몬(Lemon)

학명: Citrus limon

주요작용: 살균, 항균, 항박테

리아 효과, 기분 전

환, 피부미백효과,

집중력 향상, 이뇨,

면역력 증강, 매추 증

진, 정맥류



깨끗하고 상쾌한 레몬 향은 삶의 의욕을 불돋아 주고 머리를 맑게 하며 유머를 되살아 나게 하는 오일로 알려져 있다.

머리를 맑게 해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 1)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손수건이나 티슈에 레몬 1~2방울을 떨어뜨려 흡입해보자
- 2) 아로마램프에 레몬 향을 발향한다.

매추 증진에~

레몬 오일은 유머를 찾아주고 목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삼 매추 증진에 도움을 준다.

- 1) 아로마램프에 레몬 오일 5~7방울을 떨어뜨려 발향한다.
- 2) 아로마 가슴기에 레몬 오일 10방울을 떨어뜨려 은은하게 레몬향이 퍼지게 한다.

미백효과

특히 레몬 오일은 피부 미백의 효과를 주며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크림 에센스 등에 한번 사용 시 한 방울씩 떨어뜨려 얼굴에 바른다.

** 과잉 사용 절대 금물! 얼굴이 따가웁니다~

실내에 살균과 향기를~ : 스프레이
방충제 : 찬장 밑에 레몬 오일을 떨어뜨린다.

3. 만다린(Mandarin)

학명: Citrus reticulata

주요작용: 항우울, 진정 작용, 소화 불량,

변비, 대장 증후군, 세포 재생

어린이나 임신부에게 사용해도 안전한 오일이다.



아이들 방에~

달콤한 시트러스 향은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늦게까지 잠 들지 않는 아이들 방에 램프 발향을 해 보자.

튼살 케어에~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임신 중반에 접어들면 튼살이 생기게 된다. 캐리어 오일 1스푼(5ml)이나 마사지 크림에 만다린 오일 3방울정도 희석하여 매일 1~2회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네뮬리 오일과 워밍 캐리어 오일도 도움이 된다.

소화 불량에~

캐리어 오일 1스푼(5ml)에 만다린 오일 2~3방울을 떨어뜨려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

4. 버가못(Bergamot)

학명: Citrus bergamia

주요작용: 항우울, 식욕 조절, 금연에 도움,

신경 강장, 비노 생식기, 살균, 항바이러스,

냄새 제거



버가못의 유래는 처음 이 나무가 재배되고 거래되었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베르가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버가못은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자신감을 부여해 추진력을 발휘하게 한다.

불안, 우울증에~

버가못은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을 치유하는 최고의 오일로 가슴의 답답함을 깨끗이 씻어주는 상쾌한 향이다. 실내에 발향하거나 손수건을 이용하여 흡입한다.

식욕 억제에~

식사 전에 버가못 오일을 흡입하면 식욕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여 음식량이 조절된다.

금연에~

- 1) 램프 발향을 하거나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티슈나 손수건에 1~2방울 떨어뜨려 흡입한다.
- 2) 아로마 목걸이에 버가못 오일을 넣고 몸에 지니고 다닌다.

방광염, 요도염 등 비뇨생식기 증상에~: 좌욕, 마사지
몸 냄새 제거에 : 마사지
집안 분위기 전환이나 살균 소독효과 : 가슴기, 스프레이

5. 오렌지 스위트(Orange Sweet)

학명: Citrus sinensis

주요작용: 불안, 따뜻한 분위기, 식욕부진, 소화촉

진, 아이들의 정서적 기쁨, 숙면

오렌지 향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집안이나 사무실에 발향하면 조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편안한 숙면에~

아로마 램프에 3~5방울을 떨어뜨려 침실에서 향을 즐겨보자.

식욕부진,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에게

평상 시 발향이나 아로마 목걸이 등을 이용하여 향을 맡게 한다.

소화가 잘 안되는 아이들

캐리어 오일 1스푼(5ml)에 오렌지 스위트 오일 2방울을 떨어뜨려 따뜻한 엄마의 손길로 배를 마사지 한다.

조화로운 분위기 연출에~

집안에서 가족간에 다툼이 있었거나 사무실 분위기가 썰렁할 때, 오렌지 오일을 발향하면 따뜻하고 조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안티스트레스 천연 아로마향수 만드는 방법>

① 솔루빌라이저 3g을 계량한다.

② 자몽오일 18방울, 오렌지스위트오일 7방울,
버가못오일 8방울, 로즈우드오일 7방울을 떨어뜨리고
50번정도 섞어준다.

③ 식물성에탄올 6g, 로즈워터 22g을 넣고 잘 혼합한다.

④ 용기에 담고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

스트레스 해소는 학생들, 직장인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한번쯤 안티스트레스 천연향수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로 스트레스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우리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식물들 중에는 꽃, 잎, 뿌리 등을 먹을 수가 있는 종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식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식용할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향과 색이 아름다운 설국차

코레우리

코레우리는 학명인 코레옵시스 속(*Genus Coreopsis*) 식물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계국 혹은 춘차국을 말한다.

사실 꽃차는 향과 그 색이 주는 아름다움과 꽃으로 만들었다는 설렘으로 주로 마신다.

설국차는 중국의 쿤룬 산맥의 야생 설국(춘차국;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고 2년생 식물로 가을에 발아하여 겨울을 나고 6월에 일시에 개화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골프장이나 도로가 등의 사면을 녹화 할 때 주로 이용된다.)을 차로 가공하여 만드는 꽃차로 최근 중국의 언론에 소개되면서 유명해 졌다. 특히 그 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향은 코레옵시스 특유의 국화향이 일품이다. 일반적인 화차는 색을 우려내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코레우리의 설국차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진한 핏빛을 내린다. 아니 물감을 한 방울 찻물에 떨어뜨리면 물속에 퍼지는 물감모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우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허브식물로 전해 내려오며 특히 혈관 기능을 개선해 혈압,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당뇨에 효험이 있어 성인병 예방에 뛰어나다고 한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피부와 혈액을 좋게 하고 수면을 편안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한다고 한다. 또, 후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차를 마신 후 개운한 입맛과 함께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효과 뿐 아니라 충치나 입 냄새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의 디아스교수는 당뇨병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항고혈압, 혈당 활동을 보완에도 선명한 효과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아세트산 에틸을 추출 투여했을 때 체장 기능 회복을 달성 하였다. 특히 꽃에서 추출한 항산화제를 마우스에 투여시 인슐린 세포주 (MIN6)에서 베타 세포 손상에 대한 수용성 추출물의 효과에서는 사전 배양하는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 생산의 감소를 통해 세포 보호를 보여주어 당뇨 및 성인병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또 중국의 신장 의과대학의 라오교수의 최근 연구에 있어(BMC Complement Altern Med. 2015 Sep 7;15:314)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신장의 염증과 섬유화 관련하여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액의



질소의 감소 등 신장비대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한편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처럼 코레옵시스의 아름다운 꽃을 이용한 약리작용은 이외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항산화 효과와 암,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현대 성인병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꽃연구소는 현재 코레우리의 다양한 품종을 많이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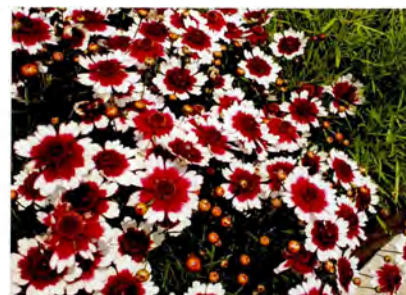
최근에는 빨강의 화색과 흰색, 핑크색, 보라색 등 대부분의 생을 가진 품종들을 개발해 일본과, 유럽에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올 가을부터는 판매 예정이다.

일반적인 금계국속 식물은 주로 노랑으로 봄과 초여름에만 개화를 한다.

그러나 우리꽃연구소 팀이 개발한 다양한 품종은 겨울, 봄, 여름, 가을 4계절 꽃을 피우고 화색도 다양한 정원이나 베란다 등에 심어 언제든지 차 혹은 음식에 곁들일 수 있다.

특히 생화의 경우도 뜨거운 물만 부으면 금방 핏빛과 같은 색소를 보여 주는데 일반적으로 기호에 따라 적게 넣으면 아주 노랑의 색깔에서 붉은 색까지도 만들 수 있고 그 맛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물론 천연 염색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덤이다.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가슴의 정원과
텃밭 안식처

윤일수(67)가드너와 성광모(70) 텃밭 가드너 부부

양평 남한강을 바라다 보고 매봉산, 마명산의 품 속에서 백령봉이 바라다 보이는 터에 가슴의 정원을 부인 윤일수가드너가 텃밭 안식처를 남편 성광모가드너가 4년 동안 정성을 다한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100(330m²)여 평의 정원에는 오엽송, 미선나무, 미산산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쪽동백나무, 황옥매화, 배롱나무, 벚나무, 자작나무, 홍화산사, 이팝나무, 감나무, 소사나무, 수사해당, 매실나무, 주목, 철쭉, 팔배 등의 국본류와 할미꽃, 톨립, 후룩스, 한련화, 무스카리, 작약, 수선화류, 오아리(클레마티스), 팬타나, 백합류, 금낭화, 붓꽃류, 꽃무릇, 마가렛, 알리섬, 국화류, 옥잠화, 비비추, 로즈마리 등의 초본류 등이 식재되어 있고, 100(330m²)여 평의 계단식 텃밭에는 참두릅, 땅두릅, 방풍, 참나물, 토란, 파, 상추, 고추, 가지, 토마토, 갓 등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수종들이 자라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주정원에 앞서 축정이 조성되어 있는데, 정화조 위에 토심을 조금만 주어 초화류 위주의 식재로 보기 싫던 부분을 감추고 정원을 확장했다. 축정을 따라 이어진 돌 화단은 주정원으로 이어져 조금씩 크기가 확장되고, 화단 가운데로 넓게 잔디를 깔고 판석을 화단과 같은 방향으로 라운딩하여 동선을 유도하며 파고라로 이끈다. 파고라에서는 사방에 산이 시야에 들어 오고 바로 아래로 텃밭



안식처가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이 정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축대 위의 집이라, 파고라를 지을 때 아래로 2층을 더 지어 농기구 보관과 함께 작업실로 사용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텃밭에서 창고로의 접근성이 좋아 일하기 편리하다는 점이다.

관리는 주로 해가 나지 않는 오전 5시 30분에서 9시까지 하는데, 일어나서 부부가 연못의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대문을 활짝 열고, 각자의 관리 공간으로 헤어져 관리하다가 관리 시간 중간에 커피 타임, 꽃과의 대화, 식물과의 교감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어 부부애가 좋아질 뿐 아니라, 운동도 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 관리 시 잡초의 제거는 잔디의 보호를 위해 호미를 사용하지 않고 가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위의 끝만 땅 속에 넣어 뿌리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노하우라 한다. 관리 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삼목도 병행하는데, 환경을 고려해 어머니무 아래에 그늘진 부분에 삼목 해 준다.

비료는 일반퇴비에 복합비료를 섞어서 주로 사용하고, 가을에 밀거름, 봄에 웃거름을 주는 형태로한다. 터를 잡은 해에 가을에 10cm이상 왕겨를 깔아 부숙 시키고, 이듬해 봄 땅을 깊게 갈아 엷은 땅을 만드는 밑 작업을 해 놓아서 인지 배수력과 보비력이 좋다고 한다.

정원의 방제는 장미에 생기는 흑반병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독성 농약을 사용해 1년에 한 번 정도 방제를 하고, 다른 수종들은 방제 없이 건강하며, 벌레가 생기면 손으로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제라고 한다.

먹거리 정원

여는 날 갑자기 매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채소들이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는 하우스 자란 것이라 생각하니 안타까워 "우리 햇빛 받으며 노지에서 자란 것들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시작한 것이 전원생활의 시작이 되었다 한다. 텃밭 가드너가 된 공대 교수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규모와 디자인과 실용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축대로 쓸모가 없어진 경사





지를 이용해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밭을 만들거나 흙이 쓸려내려 오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서 나뭇물을 채취할 수 있는 낮은 목본류와 속근류를 식재하여 접근성이 불편함을 역이용하고, 상추, 고추, 토마토 등 일년초는 접근성이 좋은 평지에 식재해 안전을 우선으로 했다. 텃밭과 정원 모든 것을 교육자답게 시작하기 전 여러 권에 책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습득 후 실행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 결과라 하겠다.

먹거리의 방제는 농약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병이 생기면 뽑아서 개체와 분리시키거나 태워서 없애버리며, 절대 연작은 피한다. 비료는 일반 퇴비를 가을에 주고, 옷거름으로 잿묵을 물에다 물려서 EM발효액과 섞고 3년 발효시켜 된장처럼 된 것을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땅의 건강과 배수에 우선 신경을 쓰면 크게 병충해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식물에게 물을 줄 때
항상 손에 물을 받아서
정성스럽게 주곤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그때는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물의 온도가 차서
체온으로 데워서 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왠지
식물들에게 가슴이 먼저 가네요.

분재를 먼저 1년 정도 배우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식물을 알아가며 지금은
가슴 가득 식물이고, 행복입니다.”

“평생을 책 속에 살다가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금방 내가 자연이 되었고,
자연과 텃밭이 나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라는 모습만 보아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 위대함과 풍성함에
항상 감사하며, 스승의 날 받기만 하던

제가 몇 해전부터는 제자들에게
손수 키운 채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그 밝은 모습들을 보며 또 다른 자부심으로
제 2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힐링원예

글 사진 김혜숙(신안산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예 및 힐링원예 저자)

중학교 시절 어느 날, 우연히 온실에서 고무나무 줄기를 잘라 모래에 꽂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그 고무나무에는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 때 느낀 그 신기함과 경이로움이 먼 훗날 제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hapter 5. 잎과 줄기를 이용한 간단한 뿌리 내리기

[잎과 줄기를 활용하여 뿌리 내리기에 도전!]

식물의 일부를 자르거나 나누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번식법을 영양번식 이라고 부른다. 영양번식 방법에는 꺾꽂이, 포기나누기, 알뿌리 나누기, 휘묻이 등이 있다.

① **꺾꽂이(삽목 cutting)** : 잎, 가지, 줄기, 뿌리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

a) 잎꽂이: 잎자루를 잘라 흠에 꽂는 방법 (페페로미아, 아프리카 바이올렛, 글록시니아, 툰나물과, 오피소가룸 ornithogalum)과 잎 한 장을 여러 개로 잘라서 꽂는 방법 (산세베리아, 렉스베고니아)이 있다.



〈하트호야 잎꽂이〉

〈시페루스 잎꽂이〉

〈갈랑코에 두비플로라 잎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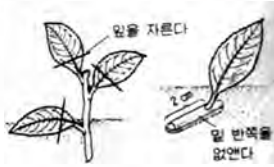
시페루스 잎꽂이(시페루스 잎을 자른 뒤 물속에 잎 가장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개체를 담근다)

b) 줄기꽂이 : 나무 종류는 10cm 정도, 관엽식물은 5~6cm 잘라서 꽂는다.

동백나무, 고무나무와 같이 잎이 큰 식물은 잎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잎을 1/2 정도 자른 후에 꽂는다.

- 상록활엽수 : 5~6월 새순이 단단하기 전에 꽂는다.

- 낙엽수, 상록수 : 7~8월 새순이 반정도 굳어진 줄기를 잘라 꽂는다.



〈제라늄 줄기꽂이〉



줄기를 3cm 자른다.

아래 잎을 따 버린다.

배양토에 꽂는다.

꽃이 핀 제라늄

c) 뿌리꽂이 : 땅 속 줄기나 굵은 뿌리를 5~10cm 잘라서 비스듬히 흠 속에 꽂는다. (라일락, 산수유, 팔꽃나무 등 꽃나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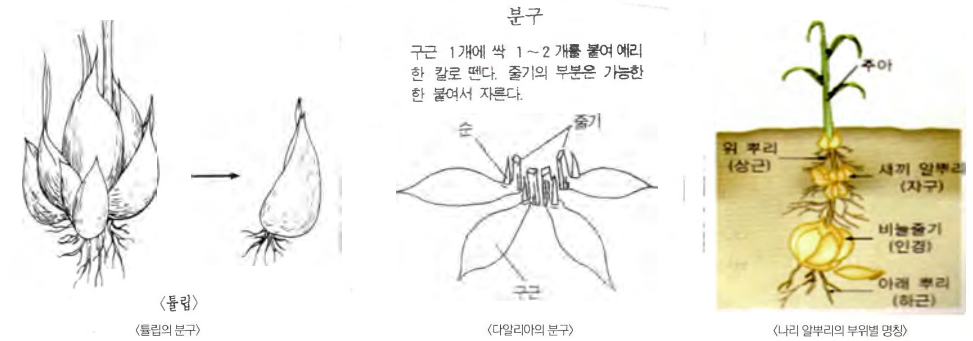
- 용토 : 깨끗하고 배수성, 통기성이 있는 흠을 사용한다. 펄라이트, 피트모스, 부엽토, 모래
- 온도 : 20~25℃, 봄~가을
- 공중습도 : 70~80%
- 광선 : 반음지

② **포기나누기(분주법 division)** : 한 포기에서 눈을 3~4개 붙여서 나누는 것을 포기나누기라 한다. 오래된 포기는 식물체가 노화, 병충해 피해, 꽃 수가 적어지고 세력이 약해서 3~4년에 한 번씩 한다. (예를 들어 프리머리는 몇 년간 그대로 두면 뿌리가 엉켜 잎과 꽃이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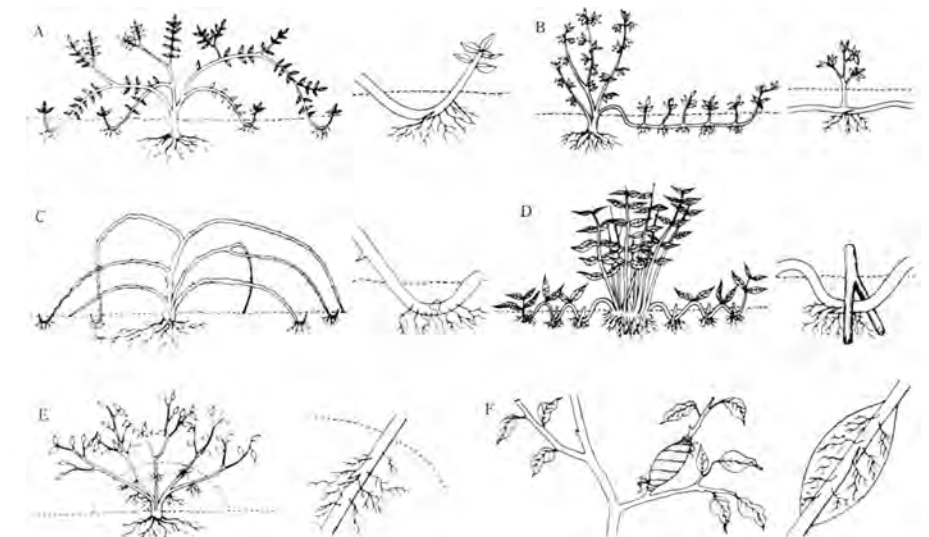
• 종류

- 관목류 : 봄에 꽃이 피는 것은 가을에, 여름~가을에 꽃이 피는 것은 초봄에 실시한다. (명자나무, 철쭉류, 조팝나무)
- 여러해살이 : 꽃이 진 후에 실시한다. (국화, 꽃창포)
- 관엽식물 : 봄, 가을에 실시한다. (아디안텀, 네프로네페스, 상고니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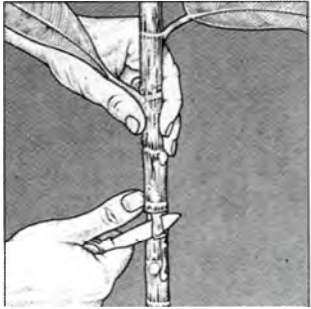
③ **알뿌리나누기(분구)** : 어머니구 옆에 붙은 새끼 구근(자구)을 따서 심거나, 알뿌리를 나눠 심는다. (히아신스, 아마릴리스, 다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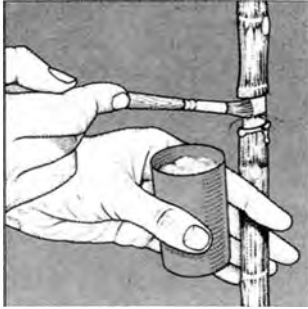
④ **휘묻이(취목 layering)** : 6월 하순 땅 가까이 있는 가지를 흠 속에 묻어두는 방법. (개나리, 수국, 덩굴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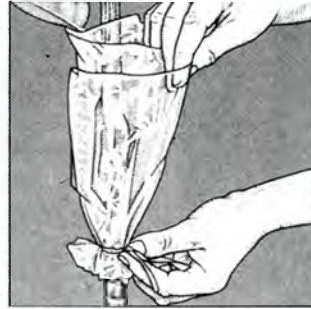
- 흙쌓기: 잔가지가 많이 나오거나 키가 작은 철쭉, 영산홍, 명자나무 등은 흙을 높이 쌓아두면 1~2년 후에 뿌리가 내린다. (위에 그림에서 D)
- 높이떼기(공중취목 airtlayering): 5~6월에 줄기 굵이를 1cm 정도 둥글게 도려낸 후 젖은 수태를 넣고 위 아래를 비닐로 감아준다. 40일 정도 후에 뿌리가 내린다. (위에 그림에서 F) 공중취목은 아래 잎이 떨어져 모양이 없을 때, 또는 빠른 시일 내에 큰 식물체를 만들려고 할 때 실시한다.
- 관엽식물: 고무나무, 크로톤, 드라세나
- 꽃나무: 석류나무, 배롱나무
- 낙엽수: 느릅나무, 소나무



1. 칼집을 내어 나무껍질을 벗긴다.



2. 발근 촉진제를 바른다.



3. 줄기에 비닐을 고정한다.



4. 축축한 수태를 비닐에 넣는다.



5. 비닐 뒷부분을 끈으로 묶는다.



6. 뿌리가 나오면 밑부분에 있는 줄기를 자른다.



7. 새로 나온 뿌리 부분을 화분에 심는다.

⑤ 런너(runner: 어미 식물에서 새로운 줄기를 뻗은 것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예- 딸기, 줄란(줄모초)



원성된 공중취목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팝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텡커벨시리즈
아니 열~수, 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뭐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리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글든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참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날고 앉아 꽃피우는

|가든인 칼럼|

고급 조경의 새로운 트렌드 그라스 가든

글 사진 서준혁



한국의 전통 조경은 유럽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 조경과도 구분된다.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풍습과 자연을 품어 안는 경관 연출이 우리의 전통 조경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어귀의 정자나 무아래 만들어진 작은 마당, 강가의 절벽위에 거슬러지 않게 지어진 정자, 그리고 조선시대 궁궐 안으로 들어와 앉은 낮은 산과 연못이 그 특징을 잘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라스 수크령



홍피는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좋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전통조경을 고집하기에는 건물의 형태나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다. 첨단 건물과 자재를 이용한 건축물에 알맞은 조성의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식물적 소재를 다루는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소나무, 대나무, 자작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은 지금도 우리 소비자가 선호하는 나무이다. 그렇다면 조경용 지피식물의 경우는 어떠한가? 별개미취, 구절초, 억새, 패랭이, 꽃잔디, 사사, 담쟁



이 등등이 우리 소비자와 우호적인 식물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 우리의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빠르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보는 우호적 식물군도 점차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하건데 그라스류가 그 대표적인 식물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그라스류를 조경에 이용하기 위한 적용 방법이 일반적인 지피식물과는 좀 구별된다는 것도 이 그라스 조경을 하나의 테마로 설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라스 종류로는 억새, 물억새, 사사, 수크령, 띠, 갈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조경관련 식물소재를 다루고 있는 서점에 둘러보면 그라스를 주제로 한 책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책들 속에 나오는 식물들 모두가 국내 존재하는 식물군들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그라스의 대부분의 느낌은 고급스럽다는 것이다. 전통의 정원이 되었던 현대적 첨단 건축물이 되었던 간에 요란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그라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히 고급스럽고 흥분되는 경관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그라스를 이용한 경관연출에 있어 문제점 혹은 특성이 있다 한다면 이들은 화려하지 않아 잘못 이용하면 그냥 잡풀에 지나지 않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통일감을 줄 것. 그라스 10종을 가지고 테마를 적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통일화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억새가 있는 군락은 뒤쪽으로 배치하고 또한 수크령이 있는 군락은 좀 더 앞으로 그리고



그라스는 초화류와 혼성식재에도 매우 잘 어울린다.



무늬억새는 대형의 그라스로 포인트식물로 제격이다

겨울에도 갈색이고 여름에도 갈색인 갈사초의 경우는 그 앞줄을 따라 서 두 줄로 혹은 서너 줄로 놓고 잎이 언제나 단풍이 있는 홍피는 약간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게 군데군데 포기를 형성시켜 대체로 온색감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그라스를 이용한 경관은 규모를 크게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로는 포인트를 반드시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무늬가 있거나, 상록이거나 아니면 매우 대형식물들을 포인트로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정감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겨울경관에 대한 예측으로 겨울에 더욱 아름답게 연출한다. 다섯째로는 군데군데 꽃이 피는 식물을 적용함으로써 통일감으로 단조로워 질 수 있는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도록 한다.

실제로 한국의 그라스 경관 중 대표적인 것이 민둥산의 대단위 역사군락이다. 그리고 상암동의 하늘공원이나 라데나골프장의 대단위 역사군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그라스를 이용한 조경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식물적인 소재도 국내에서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한국 조경용 지피식물의 이해는 그라스류를 이해하는나에 초점이 모아질 정도로 그라스는 앞으로 계속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되어진다.



중앙의 무늬와 테두리의 털수염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라스 화단



사계절 잎이 갈색을 띠는 갈사초

그라스 조경 사례



유럽 직수입 다양한 고급품종!
다년초, 1,2년초, 허브, 덩굴식물 등 다양한 종자를 선보입니다.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

정원으로의 여행 15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이너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천안연암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미로 정원이야기 (Maze garden)

요즘 제주도에 가면 쉽게 미로 정원을 접할 수 있다. 홍차를 만들 수 있는 차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 토피어리(인위적으로 전정하여 특정한 형태를 만든 식물)를 만들기도 쉬운 회양목이나 주목과 같은 나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로 정원은 어디서부터 걷는 것일까?

울타리 형태의 미로 정원은 중세시대에 발달 하였던 노트 화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수도원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소규모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회양목과 허브들을 이용하여 매듭화단을 만든 것으로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진 허브들을 이용하여 정원이 늘 푸르게 유지되게 만들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는 100개가 넘는 미로 정원이 만들어 졌는데 상록수(늘푸른나무)를 이용하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로를 따라 출구를 찾아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퍼즐과도 같은 이 미로 정원은 윌리엄 3세 때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어 지금까지도 영국에서는 미로 정원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가장 오래된 퍼즐 미로 정원은 햄튼코트 성에 있는 것으로 17세기 후반에 윌리엄 왕이 만든 것이며 옥스퍼드 근처의 블랜하임 공전에도 큰 규모의 미로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블랜하임 공전은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드높이기 위해 만들어 말버러 공작에게 하사한 곳으로 윈스턴 처칠의 생가로도 유명하며 공전의 조경은 영국의 자연풍

경식 정원 설계가로 유명한 랜슬렛 브라운이 설계하였다.



Blenheim Palace - 미로 정원의 입구. 지도를 보고 들어가고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최소 30분 정도는 헤매야 출구를 찾을 수 있다



Hampton Court Castle - 햄튼 코트 성에 만들어진 매듭화단의 모습



The garden Museum - 런던 가든 뮤지엄에 있는 매듭화단의 모습



미로 출구를 위해서 물라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물론 위에서 본다고 해도 쉽게 벽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미로 정원 중간에 불랜하임이라고 글자를 만들어 놓은 공간. 여기까지 찾아 왔다면 출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원이라고 하면 식물을 심고 가꾸며 화려한 꽃이나 나무를 기워 즐기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스타일이나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미로 정원의 경우를 보면 남녀노소,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길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구분 없이 이곳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저 아름다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정원이라 할까 싶다.

현대에 와서는 좀더 복잡한 형태로 미로 정원이 만들어 졌는데 1978년에 만들어진 윌트셔어(Wiltshire)에 있는 Longleat House가 현존 하며 방문객으로 하여금 길 찾기가 좀 더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미로 정원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미로 정원은 꾸준한 전정을 해줘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개인 주택에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영국이나 유럽과 같이 역사가 오래된 곳은 울타리 나무로 식재 된 주목의 높이가 사람보다도 높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동화에서처럼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지만 몇 년 안에 비슷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식물로만 구성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구조물로 채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미로 정원이 만들기 힘들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나라에서 정원을 만들 때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겨울의 정원이다. 겨울에 지상부가 살아있는 식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황량한 정원이 되 버리지만 늘 푸른 나무로 매듭화단을 만들고 다양한 색의 초화류나 말채나무와 같이 수피에 색을 가진 식물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원의 모습이 나올 것 같다. 프랑스에서는 키친가든을 만들 때도 형태를 만들어 그 속에 식용식물들을 심는다. 우리도 텃밭을 만드는 정원을 선호하는 만큼 자신의 정원에 어울리는 모양을 만들어 관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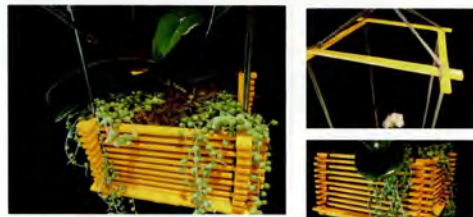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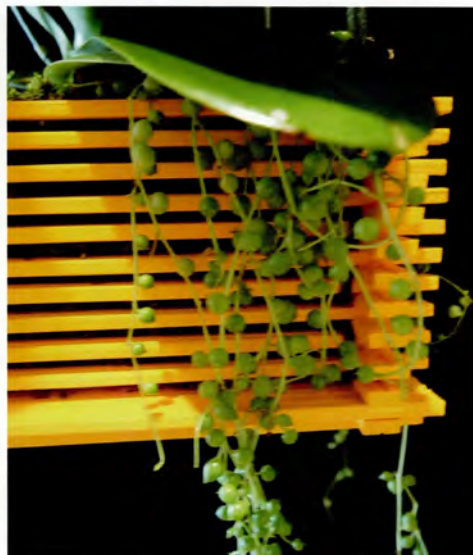
Chateau de la chatonniere - 전체적인 형태는 위에서 봤을 때 나뭇잎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배달음식을 시킨 후 남은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HOOK FLOWER POT



글 사진 우정 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화장



Material



나무젓가락



녹명(Succisa rowleyanus)



호접란(Pelecanopsis spp.)



액체물



가죽 끈



이끼



이끼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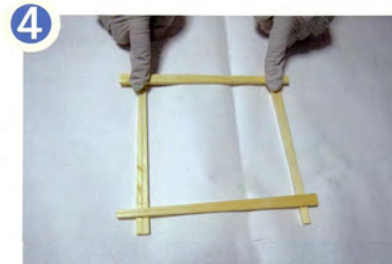
나무젓가락을 굵은 쪽과 가는 쪽을 서로 반대되도록 계속 붙여서 정사각형이 되게 한다.



밑 부분을 한 번 다리를 만들어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같은 크기가 되도록 나무젓가락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붙여 두 개씩 쌓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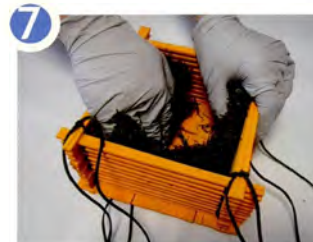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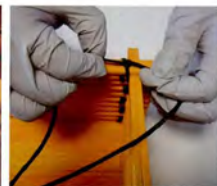
위에 가죽 끈을 고정시킬 사각 틀을 만들어 준다



이끼물감으로 원하는 색을 칠한다.



물감이 완전히 마르면 각 모서리에 가죽 끈을 연과 밖으로 뒤편서 위로 돌려 묶어 주고 위의 사각 틀과 연결한다.



포트 안에 이끼를 깔아 준다.



포트에서 분리하고, 난 지지대를 떼어내고 상한 뿌리는 제거 해 식재한다.



녹명은 뿌리의 흙을 조금 남기고, 이끼로 감싸 호접난 앞 옆으로 식재한다. 식재 후 빈 공간이 없도록 이끼로 공간을 메워준다.

>> 관리법

걸이 화분은 수분의 증발이 빠르므로 한번 관수 시 충분하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컨테이너의 경우 이끼에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끼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게 여러 번 충분히 관수를 해 주거나 통에 물을 받아 일정시간 담가 놓았다가 다시 걸어 놓는 것이 좋다. 호접난은 꽃이 지면 꽃대의 밑의 부분까지 잘라 주어야 하며, 관수 시 적당량의 액체비료를 시비하고 환경이 맞으면 꽃을 다시 볼 수 있다.

COLOUR IN THE GARDEN

Green Flowers



녹색은 자연의 색이다. 파란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닿는 산 능선이 그렇고 파란 들판에 풀과 나무들이 그렇다. 또한 봄이 되면 차가운 냉기를 밀어 올리며 솟아오르는 새싹들의 칼러도 녹색으로 빛이 난다. 산과 들을 걷다보면 식물들이 가지는 녹색의 잎과 줄기의 색상은 참 다양하다. 짙고 검은 빛이 나는 진녹색에서부터, 너무 얇아서 햇빛이 통과 할 것 같은 연노랑의 녹색에 이르기까지, 녹색 하나의 색만으로도 아름답고 멋스러운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식물에게 녹색은 잎과 줄기에만 있지 않다. 잎인지 꽃인지 줄기인지 모르게 너무나 수수하고 고요하게 피어나는 녹색의 꽃들 'Green Flowers'. 녹색이 주는 편안함과 생명력 그리고 신선함과 따뜻한 젊은이들의 활기 왕성한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들만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도

플루하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델라바이전나무

Abies delavayi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7-8월 수 3월, 11월 ↓ 7-40m



전나무 종류

Abies sp.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수 3월, 11월 ↓ m



트라페지포르메아디안텀

Adiantum trapeziforme
고사리과·속근초
▶ 4월 수 3월, 10월 ↓ 0.8-1m



가시철쭉수 '행트 컷 골드'

Aesculus hippocastanum 'Hampton Court Gold'
철쭉수과·낙엽활엽교목
▶ 5-6월 수 3월, 10월 ↓ 15m



코카시카알케밀라

Achemilla caucasicola
정미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6m



덴시플로루스아스파라거스 '마이어서'

Asparagus densiflorus 'Myersii'
백합과·속근초
▶ 6월 수 3월, 10월 ↓ 1-2m



금식나무

Aucuba japonica 'Variegata'
중충나무과·상록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1.5-2.5m



칠레세블레크눔

Blechnum chilense
새끼아재비과·속근초
▶ 8월 수 3월, 10월 ↓ 1.5m



좁희양목

Buxus sempervirens
회향목과·상록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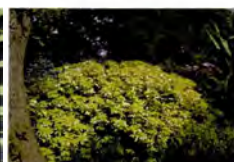
까치박달

Carpinus cordata
자작나무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15m



후밀리스차매롭스

Chamaerops humilis
아자나무과·상록활엽소교목
▶ 5-7월 수 3월, 10월 ↓ 1.5-2m



테르나타초이시아 '리크'

Choisya ternata 'Sundance' = 'Lich'
운향과·상록활엽관목
▶ 6-8월 수 3월, 10월 ↓ 1.5-2.5m



관중 교배종

Dryopteris x fraser-jenkinsii
관중과·속근초
▶ 4-5월 수 3월, 10월 ↓ 0.8-1m



에린기움

Eryngium sp.
산형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1-1.2m



바리폴리움에린기움

Eryngium yuccifolium
산형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코르니게라대극

Euphorbia corollata
대극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1m



미르시니테스대극
Euphorbia myrsinites
대극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3-0.5m



리토랄리스그리셀리니아
Griselinia littoralis
그리셀리니아과·상록활엽소교목
▶ 6-7월 수 3월, 10월 ↓ 4-8m



비리디스헬레보러스
Helleborus viridis subsp. occidentalis
미나리아재비과·속근초
▶ 3-4월 수 3월, 10월 ↓ 0.5m



비비추 '준'
Hasta (Tardiana Group) 'June'
백합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비비추 '레몬 라임'
Hasta Lemon Lime
백합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비비추 '셉템버 선'
Hasta 'September Sun'
백합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비비추 '옐로우 스플래시'
Hasta 'Yellow Splash'
백합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메디아향나무 '세이브룩 골드'
Juniperus x media 'Savaroak Gold'
측백나무과·상록활엽관목
▶ 5-7월 수 3월, 10월 ↓ 1-1.2m



차싸데미카아스테리아
Asteria chaetanthica
아스테리아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1.5m



아미그달로이드스대극
Euphorbia amygdaloides var. robbiae
대극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1.5m



카라키아스대극
Euphorbia characias subsp. characias
대극과·속근초
▶ 4-7월 수 3월, 10월 ↓ 0.5-1.5m



레쿠바향나무
Juniperus recurva var. cauli
측백나무과·상록활엽교목
▶ 5-8월 수 3월, 10월 ↓ 15-20m



브랜데미카아쥘리망초 '옐로우 퀸'
Jusicio brandegeana 'Yellow Queen'
쥘리망초과·속근초
▶ 4-11월 수 4월, 10월 ↓ 1m



일본잎갈나무
Larix kaempferi
소나무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3-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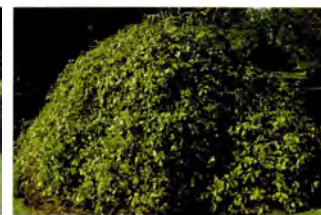
푸르푸시인동
Lonicera x purpusii
인동과·낙엽활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5-2.5m



황목련
Magnolia acuminata
목련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15-20m



청나래고사리
Matteuccia struthiopteris
고사리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5-1m



페르시카파로티아 '펜들라'
Parrotia persica Pendula
조록나무과·낙엽활엽관목
▶ 2-3월 수 3월, 10월 ↓ 1.5m



트리네르볼라페페로미아
Peperomia tinervula
후추과·속근초
▶ 1-2월 수 3월, 10월 ↓ 0.5m



코로나리우스고광나무 '아우레우스'
Philadelphus coronarius 'Aureus'
범의귀과·낙엽활엽관목
▶ 5월 수 3월, 10월 ↓ 1.5-2.5m



독일기문비 '니달프르미스'
Picea abies 'Nialloma'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5m



움브라쿨리페라소나무
Pinus densiflora 'Umbraculifera'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4-5월 수 3월, 10월 ↓ 1-3m



오에르텐다홀리방아풀 '유본고'
Plectranthus oertendahlii 'Uvanga'
꿈틀과·속근초
▶ 1-2월 수 3월, 10월 ↓ 0.1-0.5m



왈리키아나드리오프테리스
Pieris wallichiana
고사리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5-1m



코크부르니아누스딸기 '골덴바레'
Rubus cockburnianus 'Goldenvale'
칭미과·낙엽활엽안경목
▶ 7-8월 수 3월, 10월 ↓ 1.5-2.5m



팔배나무
Sorbus alnifolia
장미과·낙엽활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10-15m



양주목
Taxus baccata
주목과·상록침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15-20m



무늬돔초미
Polystichum munitum
고사리과·속근초
▶ 4-6월 수 3월, 10월 ↓ 0.5m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④

암석 식물 Rock plants

암석 식물은 넓은 범위의 내한성 식물로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던 식물을 대표한다. 대부분 암석 식물은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생육이 알맞다. 단순한 모양으로 자연스런 매력을 가진다. 보통 예쁘고 앙증맞으며 깨끗한 색상으로 풍성한 꽃을 피운다. 좁은 틈에서부터 화분, 넓은 암석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정원에 잘 어울린다.

암석식물이란?

구근을 포함하여 매트나 쿠션모양을 형성하는 다년생 속근초를 말하나 왜성으로 자라는 수목과 관목도 포함한다. 고산성 식물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암석정원 식재에 알맞은 작은 크기의 식물일 수도 있다. 많은 고산성 식물들은 특화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적당한 사면의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종, 품종 등을 말한다.

생장특성

고산성 식물들은 수목 한계선 위 쪽에서 바위투성이 사면이나 바위의 균열 틈 등에서 자란다. 대부분 생장 습성상 뿌리를 깊게 내리며 뻗백하게 밀도 높게 자란다. 작은 잎은 가죽질이며 광택이 나거나 얇은 털로 덮여있다. 이러한 적응 방식으로 고산성 식물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며 뜨겁고 강한 태양이 내리쬐며 온도차가 극대화된 지역에서 살아남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는다. 또한 빠르게 배수되는 거친 토양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이나 고도가 낮은 정원의 겨울 추위에 약하며 습한 여름을 싫어한다.

조경적용

암석식물들은 상록성인 경우가 많아 연중 정원을 즐길 수가 있다. 작은 관목으로 그 틈을 잡고 그 공간 안에 숨이 달리고 반짝거리며 뻗백하게

바닥에 깔린 작은 식물을 식재하면 꽃이 만개한 것만큼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암석식물은 상대적으로 개화기가 짧은 편이지만 작은 깨끗한 색상의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난다. 가을이나 초봄에 꽃이 피는 구근을 이용한다면 정원의 개화기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일년내내 볼거리를 유지하기

상록성인 식물과 구조적인 식재가 략가든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고산성 식물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에 대부분 개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 봄에 피는 구근류나 무늬악새, 역새 그린라이트, 에버골드 등 그라스류와 연속 개화하는 노랑속근코스모스, 상록잔디패랭이, 스텔라원추리 등 품종을 적용하면 보다 감상할 수 있는 계절을 확대할 수 있다.

토양

토양과 돌의 선택은 암석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암석은 그늘과 미네랄을 제공해주고 배수를 개선시켜주며 뿌리생장을 보호해 준다. 이러한 암석은 보통 토양 아래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의 경우 이러한 암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모래와 자갈 토양으로 배수가 너무 빠른 경우 스펀지처럼 물을 잡아두는 피트모스와 같은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토양의 배수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너무 겹질과 같은 유기물질을 첨가하는 것이다. 이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 뿐 아니라 진흙 또는 진흙질 양토와 같이 무거운 토양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암석식물



산구슬갯냉이



바위솔



돌꽃잔디



돌장미



패랭이 핑퐁



에기세덤



패랭이 쿠션



상록잔디패랭이

- 가든인 생생정보 -

예로부터 널리 쓰여온 덩굴식물
칠향



칠향(Pueraria thunbergiana)은 뿌리 자라는 목본성 덩굴로 다소 털이 나기도 하며 한계절에 길이가 18m까지 자라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널리 쓰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줄기로는 밭줄이나 섬유를 만들었으며 꽃과 뿌리는 약으로 뿌리는 구황식물로 또 있는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널리 써왔다.

한방에서는 여름에 뿌리와 꽃을 채취해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갈화(葛花), 뿌리 말린 것을 갈근(葛根)이라고 한다.

갈화는 장풍(傷風)에, 짧게 썰어 말린 갈근은 치열 '산열' 발한 '해열'에 쓰인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칠향뿌리의 생즙을 마시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향은 가을이나 봄에 뿌리를 캐서 물로 씻어 그늘에 말렸다가 잘게 썰어서 쓴다.

칠향은 70%쯤이 물로 되어 있으나 그 밖에 당분, 섬유질, 단백질, 철분, 인, 비타민 등이 골고루 들어있고 다이드제인, 다이드진 등 열을 내리고 머리 아픈 것을 낫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성분들이 들어 있다. 칠향은 땅속에서 물을 빨아들여 굵은 몸통 속에 저장한다.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서도 설사를 멎게 하는 작용을 한다. 땀으로 물기를 내보내고 열을 내려 열병으로 인한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칠향은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당뇨병, 부종, 설사, 황달, 술독, 고혈압, 두통, 협심증 등에 좋은 효험을 보일 때가 많다.

칠향뿌리는 성질이 차가우므로 몸이 찬 사람, 곧 소음이나 태음체질인 사람이 오래 복용하면 좋지 않다. 칠향은 소양체질인 사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자 보약이다.



갈화차(葛花茶=칠향차)
갈화차 만드는 법

1. 채집한 칠향은 시들기 전에 생수로 피는데 손질을 잘하면 구태여 씻을 필요는 없다.

2. 물이 끓을 때 강그늘을 높게 하여 꽃을 엮고 3-4분 썬 뒤에 뚜껑을 열어 김을 빼고 그늘에서 말린다.
3. 마른 칠향은 부서지지 않게 잘 갈무리한다.
4. 차를 달일 때는 되들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칠향 20g을 넣고 5분쯤 더 달이면 담홍색의 갈화차가 된다.
5. 갈화차는 칠향이 나는 듯 마는 듯 은은하고 꽃향이 그득하다.
6. 진하게 달여 마셔도 좋고 은은하게 달여 두고 물 마시듯이 마셔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섬초롱꽃



해안지대에서 자라는 섬초롱꽃(Campanula takesimana)은 여러해살이풀로 울릉도 특산 식물의 하나이며 기다란 원통형의 꽃이 예전 반에 사용했던 초롱과 모양이 비슷해서 '초롱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섬초롱꽃은 6-8월에 피고 초롱꽃의 꽃색은 황백색인 반면에 섬초롱꽃은 연한 자줏빛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다.

다년생 초본으로 꽃의 길이는 3~5m로 가지와 원줄기 끝에서 종처럼 아래를 향해 핀다.

흰색 바탕에 짙은 반점이 있는 것을 흰섬초롱꽃(for. alba) 꽃이 짙은 자줏빛인 것을 자주섬초롱꽃(for. purpurea)이라고 한다.

한여름밤, 울릉도 해안가를 거닐다 보면, 섬초롱꽃의 고개 숙인 모습이 종 모양의 초롱불이 주렁주렁 매달린 듯하여 순박하고 정스러운 시골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음지에서 잘 견디며, 분화용으로도 우수하다.

약효 또는 용도

관상초로 심고 한방과 민간에서 뿌리를 전식, 보익, 경풍, 한열, 보폐, 편도선염, 인후염 등에 약제로 쓴다.

또한 연한 잎과 줄기를 채취해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말려서 볶아 먹기도 한다. 찜채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만개한 꽃은 따서 안에 육류와 양념을 채워 요리하여 사용하면 맛과 모양이 매우 좋다고 한다.

GARDEN & BOOK

테마별로 정리한

시골의 발견

글, 그림 오경아 | 사진, 임종기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가 안내하는 도시보다 세련되고 질 높은 시골생활 배우기

『시골의 발견』은 시골 문화가 어떻게 잘나가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시(도심)보다 더 질 높은 삶을 시골(변두리)에서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 진정으로 행복한 시골생활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책이다. 예쁜 시골, 아름다운 삶, 그리고 도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은 의도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취재 여행을 떠났고, 그 결실을 온전히 이 책에 담았다.

왜 우리는 지금 '유럽의 시골'에 주목해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한플레시스 원에 농가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담당하는 종합 농장.

개성만점 시골 식당. 시골이기에 가능한 박물관, 오래된 시골집의 게스트하우스 활용까지!

행복한 시골생활 설계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책!

"지금 우리 시골에는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농사는 짓지 말라', '도시 가서 살아라' 하고 등을 떠밉니다. 그만큼 시골에서의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유럽의 시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기업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도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농장 자체가 브랜드화되어 경제적으로 도시생활보다 더 주목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이는 삶의 질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시골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기획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책 『시골의 발견』입니다. 시골이라는 곳을 막연하게 낭만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또 낭만이 빠지고서야 시골의 맛이 또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의 시골은 이런 낭만과 생활의 공존이 너무 멋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쁜 시골, 아름다운 삶, 그리고 도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은 의도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취재 여행을 떠났고, 그 결실을 온전히 이 책에 담았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귀촌귀농, 시골생활을 꿈꾸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정착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먹고사는 일은 쉬울까?

시골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시골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가 안내하는 도시보다 세련되고 질 높은 시골생활의 노하우 속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300여 장의 다채로운 시골 콘셉트 사진까지!



저자 소개

저자 오경아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2005년부터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7년 동안 조경학을 공부하며, 정원 디자인과 가드닝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들을 전해왔다. 정원을 잘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세계 최고의 식물원인 영국 왕립 식물원 큐가든의 인턴 정원사로 1년 간 일했다. 오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정원설계회사 오가드슨을 설립하고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속초에 자리한 '오경아의 정원학교'를 통해 전문가의 물론 일반인도 알기 쉽게 가드닝과 가든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읽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원에 이야기와 가드닝 지식을 담은 『정원의 발견』, 자칫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가든 디자인 원리와 실재를 예술가들의 정원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한층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가든 디자인의 발견』, 막연하게만 꿈꿔왔던 시골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골생활 안내서 『시골의 발견』, 그리고 정원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에세이 『소박한 정원』, 『영국 정원 산책』, 『낯선 정원에서 임마를 만나다』 등이 있다. 이처럼 품고 있으면 '정원이 되는' 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필하는 것이 작가로서 그녀의 꿈이기도 하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2층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6층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창원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등문고 잠실점, 영광도서(부산), 남포문고(부산), 독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전 합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서준혁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전문위원: 김광두 농학박사 / 前상명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대표
김귀순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고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명섭 농학박사 /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前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쏙~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립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휘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신제품 출시!!



오렌지글로브 Orange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5



핑크글로브 Pink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3



크림글로브 Cream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1



미니스카트 Miniskirt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젠슨 Ze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7



오렌지파크 Orange Par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7



화이트파크 White Par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9



솔몬링 Solomon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95



미니펍민 Minipumpk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4



미네볼리 Mini ball ruby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2



아이스리크 Icey Par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



비진 Virg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0



옐로우링 Yellow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96



핑크얼 Pinka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1



골드볼18 Gold ball 18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6



알갱이 알갱이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4



레몬파크 Lemon Par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4



모닝스타 Mor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3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제품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 품종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구입문의 : 031-634-7990